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9호  
2024년 4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미주동창회 100만불 장학기금 만들어진다

### 미시간 고평국 · 고국화 동문, SNUAA 스칼러십 100만불 기부 약정

올해 1차로 10만불 보내 ... 4년간 20만불씩  
“서울대는 제 학문과 인생의 기초를 닦아준 곳”

미시간 기부 고평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가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미주동창회에 100만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했다.

고국화 동문은 지난 2월 미주동창회에 10만달러를 보내면서 2025년 10만달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동안 매해 20만달러를 보내 모두 100만달러 장학기금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고국화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남편과 저는 미주동창회에 ‘고광국 · 고국화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스칼러십 (Kwang and Kook-Wha Koh’s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hip)’을 만들기로 했다”며 “오래전부터 SNUAA 장학금을 세우고 싶었는데 더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모교인 서울대에 장학기금을 만든 미주 동문은 여럿 있지만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이름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 학생들을 위해 스칼러십을 만든 것은 고평국 · 고국화 동문이 처음이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국화 동문은 1977년 크라이센 인터스트리안 회사를 창업해 GM, 크라

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에 수용성 오일인 절삭유와 C150 콜런트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키웠다.

고국화 동문은 “100만달러를 한번에 주고 싶었는데 IRA 은퇴연금계좌에서 택스 혜택을 받으며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부부 합산 1년에 최대 20만달러라고 해 올해와 내년은 10만달러씩 그리고 4년간 20만달러씩 보내기로 했다”며 “미주동창회가 SNUAA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잘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국화 동문은 지역 교회에도 장학금을 만들어 내년에 10만달러를 보내면 스칼러십 셋업이 끝난다. 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을 한 아이오와 대학에도 장학금을 세워 2021년 100만달러 기부를 마무리지었다. 서울대 공대에도 2008년 이미 10만달러를 보냈다.

“1965년 미국에 유학 올 때 달랑 50달러 들고 왔는데 아이오와 대학에서 풀 스칼러십을 줘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서울대는 제 학문과 인생의 기초를 닦아준 곳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100만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한 고평국(왼쪽) 고국화 동문.

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니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지요.”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으로 SNUAA 스칼러십을 관장하고 있는 한홍택(공대 60) 동문은 “고광국 · 고국화 박사님은 지난 해에도 지명장학금으로 1만달러를 후원해주셨는데 이번에 100만달러 기금을 만들겠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엔다우먼트 펀드가 생기면 2년마다 바뀌는 미주동창회 회장단에 상관없이 SNUAA 스칼러십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미주동창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초석을 놓아주시는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SNUAA 스칼러십은 미주 전역에서 한인 장학생을 모집하며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은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 지부 대표들을 포함하는 장학위원회를 구성해 SNUAA 스칼러십 프로그램과 펀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SNUAA 이름에 걸맞는 멋진 장학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3면〉

## 9개 지부에 18500달러 장학금 지원 이상강 회장 “지부와 교류 강화할 것”

### 4월 워싱턴DC 방문

미주동창회가 지부 장학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9개 지부에 2000~2500달러씩 모두 1만 8500달러의 장학금을 보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지난해 취임하

면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부들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미시간, 미네소타, 워싱턴 DC, 휴스턴, 샌디에이고, 하트랜드, 뉴잉글랜드, 뉴욕, 밴쿠버 등 9개 지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장학금을 보냈다. 밴쿠버 지부의 경우, 미주동창회 지원 덕분에 그



동안 재정 부족으로 중단했던 장학생 선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상강 회장은 또 “젊은 동문 영입이 동창회의 최대 과제인 만큼 뉴잉글랜드의 젊은

동문 모임인 관악회에도 2500달러의 지원금을 보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요청을 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강 회장은 “각 지부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미주동창회도 발전한다”며 임기 중 지부와 유대 강화와 협력에도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미 뉴욕과 하트랜드 지부를 방문했으며 오는 4월초에는 워싱턴DC를 찾아가 지역 동문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텍사스, 뉴잉글랜드, 미시간 지부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상강 회장은 그러면서 “동문들의 꾸준한 종신이사 가입과 후원 덕분에 미주동창회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미주동창회에 대한 동문들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알립니다

## 서울대 동창회보 5월부터 변화 있습니다

친애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동창회보 발송과 관련해 5월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월간으로 발행되는 동창회보는 파악된 미주 동문 숫자보다 많은 수량이 발송되고 있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7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는 지난 6개월간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초순에 수신되는 5월호 발송부터 기존 수신 동문 리스트를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나서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창회보는 2가지 방법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시대를 맞아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pdf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수신이 확인된 동문들에게는 종이로 만들어진 동창회보를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USPS 우편 메일로 발송과 수신이 되는 종이 동창회보에 대한 동문들의 정보 취득 취향과 수신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창회보의 수신을 매달 기다리는 많은 동문들이 있는데 반해 수신을 원하지 않아 부담스러워하는 동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동창

회 운영과 절약되는 재원을 동창회의 다른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대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선뜻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많은 좌충우돌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승적 차원에서 소프트 랜딩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동창회 집행부는 미전역 지부들의 동문 정보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문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문들의 자산이 됩니

다. 17대 집행부 임기 중반을 지나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주동창회가 커뮤니티로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모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5월 말이 돼도 동창회보가 우편으로 오지 않을 경우, 각 지부 집행부나 미주동창회 집행부로 수신 확인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17대 집행부의 중심 어린 노력에 항상 큰 호응과 격려, 채찍질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17대 집행부

## “6월 크루즈 평의원회의, 벌써부터 설레요”

7박 8일 웨스턴 캐리비안 ... 동문 · 가족 66명 참가



오는 6월1일(토)부터 8일(토)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프린세스)에서 개최되는 제3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가하는 평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배우자를 포함한 대회 참가자가 총 66명에 달하고 평의원만도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부가 골고루 참여했다. 평의원 의결권 분포만 살펴봐도 가장 인원이 많은 남가주는 22명에 달하고 뉴욕 7명, 뉴잉글랜드, 미네소타, 미시간, 시카고, 워싱턴DC, 코네티컷, 조지아, 로키마운틴, 하틀랜드 등이 망라됐다.

대회가 휴가철을 앞둔 시즌이라 개인적인 일정이 빡빡함을 고려하면 동창회 및 모교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대회 참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남가주 참가자의 경우, 임춘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민일기 전 회장 등은 물론, 박종수 골드 종신이사, 이종묘 실버 종신이사, 김기형 종신이사, 김자성, 조두연, 전경배, 조정시, 김홍목, 김병완, 이창렬, 이명일, 정현식, 김영덕, 이재진, 강미자 평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미주동창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

남가주 · 뉴욕 · 뉴잉글랜드 · 미네소타 · 미시간 · 시카고  
워싱턴DC · 코네티컷 · 조지아 · 로키마운틴 · 하틀랜드  
전 지부 평의원 고루 참여 ... 아직도 추가 신청 가능

승배 홍보국장, 백정현 광고국장, 박혜옥 감사장, 백옥자 총무국장, 박평일 장학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또한 황효숙 18대 차기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신용남(뉴욕) 15대 회장, 윤상래(뉴잉글랜드) 14대 회장, 오인환(워싱턴DC) 12대 회장 등이 참가하고 미시간 지부 고광국, 고국화, 조병권 평의원, 조상근(뉴욕) 플래티넘 종신이사, 김창수(코네티컷) 골드종신이사 등이 있다.

지역별 평의원을 따로 살펴봐도 김현영, 윤정나(필라델피아), 신정윤(뉴욕), 이준수(시카고), 김순영(로키마운틴), 김명숙(조지아), 조정현(뉴욕) 동문이 참가하게 된다.

임춘택 남가주 회장은 “최근 장학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평의원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출수차(33차) 회의에서는 회장을 선출하지 않기에 보다 편하게 동창회 발전을 위한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성 남가주 평의원은 “항상 미주 동창회에 소속돼 있지만 다른 지부 동문과 선배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도 쌓고 선배들의 노하우, 경험을 들을 기회를 갖게돼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이번 대회는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었던 미주 각 지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관악세대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된다”면서 “미주 동창회와 각 지부가 코로나 동면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는 기회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100만불 장학기금 등 다양한 안건이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산하 27개 지부 회장들과 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이사(실버 및

골드 이상 등 포함)도 회의에 참가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크루즈 일정은 첫날(6월1일): 플로리다(Ft. Lauderdale) 출발, 둘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셋째날: 코스텔(멕시코) 기착해 마야사원과 아름다운 백사장, 이국적인 정글 체험, 넷째날: 로아탄(온두라스) 기착해 아름다운 산호초, 열대 풍경 경험, 다섯째날: 벨리즈시티(벨리즈) 기착해 유카탄반도를 방문하고 마야 문명을 관람하고 역시 열대 야생을 관람, 여섯째날: 코스타 마야(마할우알, 멕시코) 기착해 4곳의 마야 유적을 통해 진정한 마야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곱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마지막 밤으로 폐막 행사, 여덟째날: 플로리다(Ft. Lauderdale) 도착이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은 “참가 신청은 일단 마감된 상태지만 아직도 개별적인 대회 참가 예약은 가능하다”면서 “추가 참가가 가능하니 더 많은 평의원은 물론 일반 동문도 참여해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백옥자 총무국장(818.395.1967)

장병희 편집위원

# “열심히 일하는 젊은 동문들 보면 흐뭇... 돕고 싶어”

SNUAA 100만달러 장학금 약정 고국화 동문

미시간 지부 생기며 동창회 활동 즐겨  
한국 첫 여성 공학박사 ... 아직도 현역

고국화 동문은 동창회 덕분에 사는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다. 2021년 말 미시간에도 동창회 지부가 생겼고 고국화 동문에 비해 ‘한참 젊은’ 이광진(공대 81) 동문이 회장을 맡으면서 80년대와 90년대 학번이 주축을 이루는 ‘만나면 즐거운’ 동창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동문은 커녕 한국인들을 별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고국화 동문은 동기도 만나고 젊은 동문들을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 동창회 모임에 가능하면 함께 했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 임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도 했다.

“작년 설날에는 아이들까지 해서 많이들 모여 웃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구요.”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 멀리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주최하는 SNU포럼에 줌으로 참여하고 워싱턴DC의 김광국(사대 92) 동문이 주도하는 동문들의 창업과 벤처투자를 돕는 네트워크인 기업가 라운드테이블(Entrepre-

neurship Roundtable) 줌 미팅에도 참여해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후배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렇게 서울대 미주 동문들과 인연을 맺은 고국화 동문은 지난 2월 미주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100만달러 출연이 끝날 때까지는 1만달러씩, 100만달러가 채워지면 수익금의 절반씩 미주동창회와 미시간 지부가 나눠 쓴다는 것이었다.

고국화 동문은 한국 첫 여성 공학박사이고 1977년 자신의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창업해 GM으로부터 5만달러의 연구 그랜트를 받아 개발한 제품을 납품해 성공했으니 성공한 여성 벤처 기업인이다. 그는 지금도 현역이다.

아들에게 사업을 넘겨줬지만 일주일에 2-3일은 회사에 나가 컨설팅을 해주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행유 잡지를 본다.

또한 여성 첫 공학박사라는 책임감을 갖고 매해 10월이면 한국을 방문해 서울공대 여성 동창회 모임과 루브리칸트(유



고광국 · 고국화 동문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미시간 동창회 임원들을 자택으로 초대했다.

활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처음에는 한국의 유행유 산업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참석해 멘토링을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발표해 제가 오히려 배우야 할 정도예요. 젊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즐기고 와요.”

1960년대 유학 와서 자리잡고 성공한 동문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너무 겸손하다는 것에 놀란다. 고국화 동문은 50달러를 들고 미국에 왔다. 1년 먼저 유학

온 남편이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을 아껴 보내준 500달러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 비행기표를 끊었고 거기서부터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이틀 걸려 아이오와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며 박사 학위를 마쳤다.

고국화 동문이 해마다 수여할 1만달러의 장학금은 그냥 1만 달러의 돈이 아닐 것이다.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고 동문의 의지와 노력과 자신감 그리고 겸손이라는 인생 미덕도 함께 선물받는 것일 것이다.

# “후원금 내면 동문 이름으로 지명장학금 만들어요”

SNUAA 스칼러십 총괄 한홍택 박사

“동창회가 장학생 모집 · 심사 복잡한 절차 대신  
SNUAA 장학금 계좌 아래 각 동문 펀드 따로 관리”

2022년 처음 장학생 선발을 시작한 미주동창회 장학금 SNUAA 스칼러십은 한 해에 10명씩 2년간 2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미주 한인사회 장학금으로는 최대 금액인 1만달러 장학금으로 첫해는 미주동창회가 5만달러, 장학위원장을 맡은 한홍택(공대 60) 동문이 1만 달러를 쾌척해 10명을 선발했다. 2회 때는 동창회 장학기금 6만 달러 이외로 한홍택(공대 60) · 백훈(미대 61) 동문 부부 1만 달러,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 코네티컷 고유시영 동문의 아내 유은주 여사 그리고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이 소유한 삼익악기 미주법인이 각각 1만달러씩을 후원하며 지명장학금 대열에 합류했다. SNUAA 장학금을 처음 발의하고 재정 후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한홍택 동문은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지만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도 뭣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며 “후원금을 내면 동문 이름으로 지명장학금을 만들고 동창회가 복잡한 절차와 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대신할 것”이라며 후원을 당부했다.

한 동문은 또 “개인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 보다 서울대 동창회 안에서 SNUAA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을 것”이라며 “지명 장학금이 10명만 되면 SNUAA 장학금도 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밀큰스칼러십 같은 장학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9년 1만 달러 장학금으로 발족한 밀큰스칼러십은 우수한 학업성과 탁월한 리더십,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역경과 고통을 극복한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장학금 수여 외에도 멘토링 서비스와 인턴십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 동문은 올해 제3회 SNUAA 장학금은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과 이번엔 톡큰 기부를 해주신 고광국 · 고국화 동문 부부, 새로 후원을 약속한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 그리고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 저희 부부 포함해 현재로선 6명만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뜻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 동문은 또 “동문들이 후원을 해주면 SNUAA 장학금 어카운트 아래 동문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SNUAA 장학생 모집은 4월 초 즈음 공고를 내 6월말까지 신청서를 받은 후 새로 구성되는 장학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9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홍택 동문은 미주동창회 뿐 아니라 앞서 2021년 12월 부인 백훈 동문과 함께 모교에 ‘한백 장학기금’을 설립해 100만달러 기부를 약정하고 매년 10만달러씩 출연하고 있다. 해마다 공대와 기계공학부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해 4년간 전체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한 동문은 1960년대 가난하던 시절 교



모교는 물론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장학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한홍택 백훈 동문 부부.

과서를 살 돈이 없이 친구들에게 빌려서 공부를 했고 미8군 사령부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자신이 “개천에서 난 용”인데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동문은 UCLA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한국 과학의 요람 KIST 원장 등 평생을 다양한 지역에서 기계 재료공학 부문에 업적을 쌓은 학자다. 1999년에는 복합기계, 재료의 설계 및 성형제작 부문의 공로로 삼성의 호암상(공학부문)을 받았다.

# ‘60년 지기’ 산사나이들 “가즈아! 에베레스트로”

## 1964년 문리대 산악회 동기 권봉성, 조경석, 김남수 세 친구 ‘EBC 트레킹’

1964년 문리대에 입학하고 산악회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다. 김남수(천문기상학과), 조경석(식물학과), 권봉성(지질학과) 세 친구는 주말이면 북한산과 도봉산 곳곳을 누비며 인수봉 선인봉 암벽 등반을 했고 방학이면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을 오르며 ‘산사나이’로 4년 세월을 함께 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흘러 그들이 알게 된지 60년이 되는 올해 세 친구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트레킹에 나섰다. 3월 27일 नेपाल 카트만두에 도착해 경비행기를 타고 에베레스트 트레킹이 시작되는 루클라도 이동했으니 지금쯤이면 5643m 칼라파타르 정상에서 장엄한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눈과 마음에 담고 벽찬 감동을 뒤로 한채 설산을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에베레스트로 떠나는 ‘60년 산사나이’ 권봉성 동문을 만나봤다.

“조경석은 여기 남가주에 살아 거의 매주 같이 산에 다녔고 김남수는 토론 토에 살지만 매년 만나 등산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올해가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이고 우리도 졸업한 지 60년이니 뭐 좀 해보자고 얘기하다 히말라야에 가기로 뜻을 모았지요.”

1975년 관악캠퍼스가 생기면서 동송동에 자리잡고 있던 문리대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문리대 산악회는 한국 산악회에서 가장 권위있고 역사가 깊은 산악회로 명맥을 잇고 있다.

1981년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정인 안데스 산맥 아콩카과(6962m) 등정에 성공했고 1990년대에는 종주 등반을 시작해 한국에 백두대간 종주 붐을 일으켰다.

문리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의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종합적인 조사를 겸하는 학술답사산행으로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서울대 산악반으로 활동하고 졸업을 하면 문리대 OB 산악회로 가입을 해서 계속 산악활동을 해요. 이번 히말라야 트레킹도 본부에 알렸더니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 행사로 하자고 해서 한국쪽에서도 대원 4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에베레스트 트레킹에는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세 친구 외에 한국에서 윤석태(물리학과 62), 조규배(식물학과 66), 김학중(화학 66), 노용국(금속학과 76) 동문과 서울대는 아니지만 권봉성 동문이 남가주에서 20년 가까이 함께 산행해온 한의사 한태우씨와 이용현씨도 합류했다.

일정은 3월 27일 카트만두에서 9명이 발대식을 하고 루클라로 이동해 일주일 동안 남체바자르(3440m), 탕보체(3860m), 페리체(4240m), 로브제(4950m), 고락셉(5140m)을 거쳐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5400m)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EBC에서 좀 더 올라가 전문 장비 없이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자 해발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칼라파타르(5643m)에 올라 그 장관을 눈에 새기고 내려오는 것이다.

하산길은 닳새를 잡아 이번 EBC 트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앞두고 마운틴 발디에서 고산 훈련을 한 권봉성 동문과 이용현, 한태우, 조경석 동문이 트레킹 폴을 높이 올리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문리대 산악회 70주년 기념해 세 친구 뜻 모아  
한국서도 참여, 모두 9명이 16일 일정 트레킹  
권봉성 동문은 이번이 네번째 히말라야 행  
“넬 모레 여든? 고도 적응 하면 어렵지 않아”

킹은 4월11일까지 16일 일정이다.

그런데 히말라야 트레킹은 권봉성 동문에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 번째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2번 했고 이번 EBC 코스도 5년 전에 처음 다녀왔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갈 때마다 느낌

이 달라요. 계절에 따라 기후에 따라 그리고 몸상태나 기분에 따라 갈 때마다 새로워요.”

아무리 ‘60년 산사나이’라고 해도 넬 모레면 여든인데 에베레스트 트레킹이 별로 힘들게 아닌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다.

“고도가 높아 산소가 부족하니까 평지를 걷는 것도 힘이 들지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고도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지만 고도 적응 훈련이 되었으면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셨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은 산에 간다. LA 근교에서 가장 높은 1만 64피트(3067m)의 마운틴 발디는 그의 뒷마당이나 다름 없다. 날씨가 좋으면 정상까지, 아니면 중간쯤까지 매주 오른다. 20년을 그렇게 다녔으니 600번은 족히 넘게 올랐으리라.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1만 4505피트(4421m)의 휘트니산도 5번 올랐다. 그리고 이번 트레킹을 앞두고 높다는 겨울 산은 돌아가며 올랐다.

“훈련만 돼 있으면 에베레스트 관광하러 가는 것과 같아요.”

좀 과장됐지만 권 동문이 답변 말미에 덧붙인 얘기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9명이 트레킹을 하는데 따라가는 현지 보조인원이 13명이다. 9명에 각각 짐꾼이 배정되고 팀 가이드가 1명 있고 밥해주는 사람도 3명이 동행한다고 한다. 그러니 트레킹하는 사람은 물과 비상식, 기후변화가 심하니 춥거나 바람 불 때 입을 옷만 챙겨 가볍게 등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았다.

비행기표까지 포함해 이번 트레킹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5000달러라고 했다. 히말라야 전문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했는데 네팔 생활비와 인건비가 싸서 트레킹 비용으로 3000달러 그리고 네팔행 비행기와 잡비가 2000달러 정도 든다고 했다.

사실 히말라야 트레킹 얘기를 들 때마다 부럽기는 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권 동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히말라야를 올렸다.

남가주 문리대 카톡방에 70여명의 동문이 참여하고 있는데 권 동문은 트레킹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과 사진으로 카톡방에 올리겠다고 했다.

한동안 눈과 마음이 즐거울 것 같다.



권봉성 동문이 1966년 봄 문리대 산악회 친구들과 함께 한 근교산행 모습. 왼쪽부터 김순태, 심재형, 박명수, 고철환, 권봉성.



남가주 하이킹 명소로 꼽히는 아이스하우스 캐년 눈밭을 걷고 있는 권봉성 동문.

### “한 밧줄에 묶여 바위 절벽 올랐던 눈구덩이 속에 묻혀 밤을 세웠던 그 시절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다”

권봉성 동문은 산이 좋아서 지질학과를 택했다. 부산에서 12시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물어 물어 동승동 캠퍼스를 찾아가서 입학과 동시에 산악회에 입회했다.

형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교수님들의 끈임 없는 사랑 속에 어리버리했던 시골뜨기는 자신감 넘치는 산사나이가 돼 캠퍼스를 떠났다.

권 동문은 “한 밧줄에 묶여서 바위 절벽을 올랐던,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 벌벌 떨면서 밤을 세웠던 동지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한다.

문리대 산악회를 통해 맺어진 산과의 인연은 1970년 콜로라도로 유학하면서 로키 마운틴으로 이어졌다. 유학 4년 내내 로키 마운틴을 안방 드나들듯 다녔다.

그런데 직장을 잡은 곳이 산이 거의 없는 오�클라호마였다. 석유 회사에서 오일 시추 관련 일을 하다 은퇴하고 LA로 온 것이 1990년대 후반. 허기를 채우듯 산을 다녔고 산에 묻혀 살다시피 했다.

지금 일주일에 2번 산에 가고 2~3번은 골프를 치는 그는 나날이 행복하다. 동문들과 함께 하는 산행이고 골프라서 더 좋다고 한다.

## 이채진 동문, 한반도 평화 포럼 강연

### 국제적 차원서 해법 모색

한반도 평화포럼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보수와 진보 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제1회 LA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3월 7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 박사)가 주관해 ‘한반도 문제 해법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렸으며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 국제정치학 명예 석좌교수인 이채진(문리대 정치학과 55) 동문을 비롯해 일리노이대 최승환 교수, 놀위치대 구양모 교수, 미네소타대 주승호 교수 등(미네소타대 모리스) 등 8명의 전문가가 각각 보수와 진보, 중도의 시각에서 평화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채진 동문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출판돼 한미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동문은 미국 외교정책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문가로 미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클레어몬트에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을 맡기도 했다.

2019년 출간한 열한번째 영문



저작인 ‘Reagan Faces Korea: Alliance Politics and Quiet Diplomacy’(팔그레이브 맥밀란 출판)를 비롯해 미국의 한반도정책, 중국과 일본, 북한 관련해 펴낸 책이 수십권에 달한다.

‘Reagan Faces Korea’는 레이건 대통령 시기(1981-1989) 한국과 미국의 방대한 외교 사료를 발굴하고 분석했으며 한미관계에 직접 관여한 미국과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인터뷰했다.

이채진 동문의 부인은 1980~90년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을 대표했던 소프라노 강미자(음대 62) 동문이다.

강 동문은 1988년 1월 1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세계 5개국으로 위성 중계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페스티벌에 성악가로 유일하게 초청돼 세계의 청중들을 감동시켰으며 한국에서는 강미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미사모’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채진 동문이 미국의 한반도정책, 중국과 일본, 북한 등과 관련해 그동안 저술한 영문서적들.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미주 동창회 줌 무료로 이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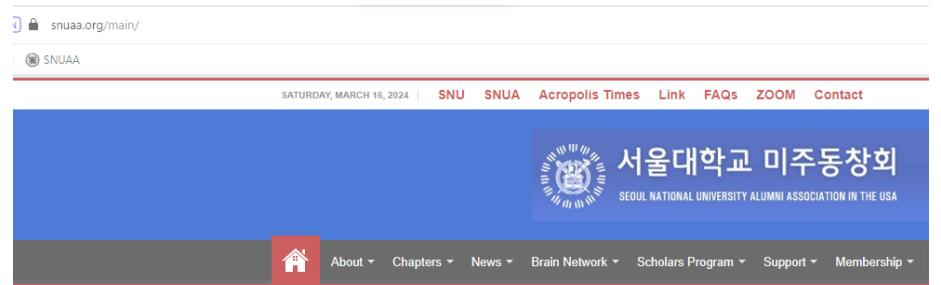
웹사이트 관리 이메일로 사전 예약하면  
시간 제한없이 메인 화면서 자동 연결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손쉽게 사용하게 된 것이 줌(zoom)이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회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대 미주동창회 홈페이지(<http://snuua.org>)에서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아무때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웹사이트 관리 이메일에 사용하고 싶은 날

짜와 시간, 호스트가 될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편리한 점은 온라인에 고정된 페이지로 연결돼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한 동창 모임에서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싶었는데 1년에 몇 번 밖에 하지 않는 모임을 위해서 유료 서비스를 구입할 수도 없어서 무료 서비스 제한 시간인 40분 단위로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시간 제한 없이 한정된 재원을 아끼는 의미도 있고 매번 주소를



서울대 미주동창회 홈페이지(<http://snuua.org>)의 상단 메뉴부분. [contact] 메뉴를 클릭하면 이메일로 연결된다. 이메일에는 zoom을 사용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 호스트가 될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실제 사용은 [zoom]메뉴를 클릭하면 가능해진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오후 5시 회의가 있다고 카톡으로 공지가 되면 그 시간에 어디서든 홈페이지의 위부분 메뉴 [zoom]을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예약이 꼭 필요하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현재는 기업넷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주 동창회의 각 지부나 산하 동아리 등 여러 모임에서도 온라인 모임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 끼니 거르는 모교 후배들 ... 천원이면 '따뜻한 한끼'

기부자 이름 새긴 Honor Wall 제막식  
매달 30달러씩 젤레로 입금 동문도

서울대학교가 벌이고 있는 학생 급식을 위한 '천원의 식사' 캠페인이 큰 호응을 일으키면서 최연소 8살 어린이부터 최고령 90세 할머니까지 기부대열에 나섰다. 서울대는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13일 학생회관 1층 식당에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아너 월(Honor Wall)' 제막식을 가졌다.

'천원의 식사' 캠페인은 서울대학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학생이 1천원을 내면 정부가 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인데 학생의 1천원 몫을 기부자들, 후원자들이 부담하고 나서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천원의 식사' 캠페인에는 올해 3월까지 약 3억9천만원

이 조성됐는데 이날 제막식에는 최연소 기부자인 홍유준(8세) 학생과 최고령 김인수 할머니(90)가 참여해 학생들이 잘 먹고 공부 잘해 나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줄 것이라고 서울대 학생들을 격려했다.

미주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조무상(법대 69, 캘리포니아) 동문은 “모교와 후배들에게 어떤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해 왔는데 큰 돈은 못내더라도 1달에 30달러씩 내서 학생들의 식사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라며 매달 30달러씩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에 젤레 Zelle로 입금하고 있다.

백옥자 동문(음대 71, 미주동창회 총무 국장)도 지난 1월 유홍림 모교 총장 캘리포니아 방문시 5백달러를 '천원의 식



식당 출입문의 '천원의 식사' 안내문

사' 캠페인에 기부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한끼 천원으로 학생의 500끼니를 지원할 수 있다니 큰 보람과 기쁨”이라며 여건만 되면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원의 식사' 캠페인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가 재정부족으로 중단의 위기

를 맞았지만 유홍림 총장이 2023년 9월부터 적극적으로 모금사업에 나서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3일의 '아너 월(기부자 명예의 벽)' 제막식에서 유홍림 총장은 “기부자들의 정성과 마음을 새겨 학생들이 감사와 고마움을 간직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시 이 후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상징적인 벽으로서 제막을 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하고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학생회관 식당에는 아침부터 학생들이 배식 대열에 길게 늘어선 한끼 천원의 식사 캠페인에 감사를 표했다.

“영양식이고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천원의 식사' 캠페인 참여 문의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이메일 [ameerica@snu.ac.kr](mailto:ameerica@snu.ac.kr) 또는 전화 (213)435-1974 으로 하면 된다.

글=김인중(농대74) 미주동창회 고문



모교 학생회관 식당에 제막된 '천원의 식사 아너 월(Honor Wall)'.中间的 유홍림 총장 좌우편으로 최연소(8세), 최고령(90세) 기부자가 함께 했다.

#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나는 곧 당신입니다”

나와 아내는 부부이며 일심동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집에서 함께 하며 밤에는 동침하니 100% 동거동락하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아내와 남편이 많은데 우리 부부는 둘다 건강하게 생존해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재작년 11월에 시멘트 바닥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다. 노년에 들어서 한 사람이 다치면 두 사람이 같이 환자가 된다. 아내는 1년동안 1인2역을 했는데 집사람이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위로해주고 싶어 이 글을 쓴다.

나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인천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여학생들 환호 속에 5년 세월을 훌쩍 보냈다. 그 후 내 전공으로 돌아와 성동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1974년 미국으로 이민왔다. 메릴랜드를 거쳐 뉴욕으로 왔고 주정부의 이중언어 교사(일본어) 매스터 디그리를 받은 다음 엘머스트에 있는 뉴타운 하이스쿨에서 근무했다.

이중언어 교사로 한국에서 새로 오는



## 나와 아내

진봉일 (공대 50)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부모들을 도와줬다. 우드사이드 P.S. 11 초등학교, 플러싱 I.S. 237중학교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은퇴 후에는 한인들이 많이 가는 클리어뷰 골프 클럽에서 엠베서더라는 칭호를 받고 1주일에 하루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거의 프리로 골프를 쳤다.

나의 아내는 디자인 계통에서 일을 시작해 열심히 뛰어서 성공했다. 아내의 성격은 철두철미하여 하루 일과가 바쁘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한 시간동안 한국일보를 비롯 로컬 신문을 보고 TV는 채널 50 푸드 채널과 채널 51 홈가든을 시청해서 살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아내의 음식솜씨는 알아줘야 한다. 어

떻게 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다. 우리 부부는 황혼이 벌써 지났지만 여전히 7업(up)을 하면서 신혼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다.

- 1. Clean up:** 자신의 몸과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 2. Dress up:**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늘 가꾸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 3. Cheer up:** 밝고 유쾌한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 4. Show up:**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꾸고 주변에 활달한 모습을 가능한 보
- 5. Pay up:** 지인과 모임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갑을 먼저 열여라
- 6. Give up:** 자신이 못할 일과 안되

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빨리 포기하라

**7. Shut up:**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데 힘써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한 분인 한용운님이 조국을 위해 쓴 시를 이번에 나를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바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너의 그림자이니라. 나는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들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나는 곧 당신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손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 그런데 부주의로 편지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편지에는 공대 50과 얼굴 사진 한 장만 첨부돼 있고 편지를 보낸 동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뉴욕에 계신 동문일 것같아 뉴욕 지부에 카톡으로 사진

을 보내고 수소문을 했으나 옛날 사진이어서 그런지 누군지 안다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

역으로 공대 50 뉴욕 동문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 동창회비를 보내준 분에 이흥우 동문 이름이 있어서 이흥우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전화번호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고 뉴욕지부에서도 회원 명부에 없는 이름이라고 전해 왔습니.

결국 저자 이름 없이라도 글을 게재하면 그 동문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이번호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 동문 저자 이름을 알게 됐습니.

글에 소개한 한용운 시인의 시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링을 하다가 뉴욕 로컬 신문에 실린 같은 내용의 글을 보게됐습니. 공대 50 진봉일 동문이었습니다. 뉴욕 동창회장과 서울공대 동창회장을 지낸 대선배셨습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늦게 게재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박종수 미주동창회 고문 “동창회 발전 돕고 싶어”



제 17대 미주동창회 고문을 맡고 있는 박종수(수의대 58) 동문이 동창회 발전을 돕고 싶다며 지난 3월 17일 이상강 현 미주동창회장 부부와 제 7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오흥조 동문 부부를 자택으로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인 서울대 수의대에 100만달러 기부를 했으며 미주동창회 골드 종신이 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 워싱턴문인회 회장에 송윤정 동문

### 서윤석, 황보 한 동문도 참여

워싱턴DC 송윤정(인문대 미학과 89) 동문이 워싱턴 문인회 회장에 선출돼 지난 1월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송윤정 동문은 미학과 졸업 후 동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DC의 월드뱅크에 근무하다 은퇴한 금융 전문가다. 워싱턴 문학 신인상(2014), 코즈미안상 대상(2020)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2020년에 디지털북 사이트인 브런치북에서 첫 작품집 ‘삶을 게임처럼’을 펴냈다.

송 동문은 문인회 회장을 맡아 “문인회 활동의 폭을 늘리기 위해 젊은 세대 영입, 미 주류사회 문학계와의 교류 등에 주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젊은 세대 지원,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문인회의 현대화, 문학지 질 향상과 주변 대학과 연계한 강연 토론 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워싱턴 문인회 웹사이트를 새 주소(<https://www.theklsw.org>)로 바꾸고 문인회 강좌 및 행사, 문인회 소식, 저자 소개, 월간 뉴스레터 -읽으러 가기, 영상으로 만나는 워싱턴 문인회-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등 섹션으로 웹사이트를 새단장했다.

워싱턴 문인회에는 서울 의대 북미주 동창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시계탑’ 편집장인 서윤석(의대 68), 한국 항공 우주산업 개척자로 은퇴하면서는 화가로 더 바쁜 황보 한(공대 56) 동문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숭아향이 강하고 당도가 높아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아요”

모교 석박사 출신으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한국품종 딸기 재배 사업에 도전해 화제가 된 문종범 동문(52)이 지난 3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수확한 ‘금실 딸기’가 마켓에서 판매됐다.

지난달 남가주 H마트 코리아타운플라자 점과 부에나파크 점에서 판매가 시

작됐고 바로 완판됐다.

‘닥터문 금실 딸기’는 문종범 박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딸기 품종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옥스나드에서 재배해 3년 만에 처음 수확한 한국 품종 딸기다.

연방 농무부(USDA)에 한국산 딸기로는 최초로, 일본산인 요토보시 이후 2번째 종자 특허를 등록했다.

문 동문은 보스턴대학을 나와 모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서른다섯 젊은 나이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됐고 11년 동안 후학을 가르쳤다.

2018년 대학을 떠나 한국 IT기업 와이즈와이어즈의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 ‘닥터 문 금실 딸기’ 드디어 시판

문종범 동문, 3년 시행착오 끝 수확  
“달고 속 짝찬 한국 딸기 시장 만들 것”

미국에 왔다.

농업이 미래산업이라 생각했던 문 동문은 개발처인 경남과 수출협약을 맺고 2020년 7월 미국행 비행기에 금실딸기 조직배양묘 10주를 들고 왔다. 북가주 라센 육묘업체에서 240주로 증식했고 남가주 샌버나디노 농장에서 첫 육묘가 시작됐다.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난해 7월 옥스나드 농장에서 1만5000주로 폭풍 성장했다.

현재 딸기농장 규모는 2에이커 정도로 내년에는 20배 정도 확장할 계획인데 부지 확보가 관건이다.

문 동문은 “모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완벽한 시스템과 품질로 내년 대

량 공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는 판매 수량보다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시장 내 한국산 딸기 시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그는 “제반 비용의 빠른 상승에 기후 변화까지 겹쳐 미국 딸기 생산량이 줄고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며 “기술력 향상, 노하우 축적, 규모가 확장이 되면 금실 딸기 생산 단가는 하락해 3~4년 내 미국 딸기와의 가격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가주산 금실 딸기는 H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주류 시장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당도와 경도가 높은 한국 딸기 특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 동문 이메일 jmoon717@gmail.com

##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유럽 무대 데뷔

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게스트 악장 초청

LA를 기반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 동문이 유럽 무대에 본격 데뷔했다.

김 동문은 지난 17일 유럽 클래식 음악의 중심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의 공연장인 황금홀(무지크페라인) 무대에 ‘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게스트 악장으로 데뷔해 바흐의 마태수 난곡 공연을 펼쳤다.

김 동문의 이번 오스트리아 빈 진출은 지난 2022년 그가 상주음악가로 활동했던 남가주 최고의 바로크 협주단인 무지카 안젤리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마틴 하셀비크 지휘자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 동문은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 맞춰 13일에는 빈의 한국문화원에서 독주회도 열었다.

김 동문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 와 USC에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 고토를 사사했다. 유명 콩쿨과 국제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아온 그는 활발한 독주 활동은 물론 현악 앙상블 ‘델리리



움 무지쿰’의 수석 멤버로 활약하고 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앙상블 아메리칸 바하 솔로이스츠에서 선정한 아티스트로 제프리 토마스상을 수상했다.

특히 바로크 시대 원전악기로 연주하는 무지카 안젤리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상주 음악가로 선임되어 활동했으며 작년 9월 이들과 함께 한 첫 상주 음악가로서의 공연에서 로카텔리의 협주곡으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김유은 씨가 연주한 쇼팽의 녹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려 1,700만 이상의 뷰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7일 열린 모임에는 동문 76명이 참석해 골든클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시카고 골든클럽 3월 첫모임 ‘힘찬 출발’

새 임원진 인선 마무리

65세 이상 동문들 모임인 시카고 골든클럽(회장 한경진)이 새 임원진을 꾸리고 힘차게 3월 첫 모임을 시작했다. 최근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회장단 선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시카고 동창회의 지원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 7일 BBQ가든에 76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부회장 안창혁(사대 65), 총무 김영원(사대 67), 재무 지옥희(간호대 69) 동문 등 새 임원진을 소개하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영우(문리대 66) 동문의 세미나 ‘봄의 소리의 향연’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과 이미지도 즐겼다.

시카고 골든클럽은 현재 멤버십 드라이브와 단독방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회원 증가에 힘쓰고 있다. 이에 힘입어 평소 50명 전후였던 참석 인원이 이날 76명으로 늘어 골든클럽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모임은 4일 오전 11시30분 같은 장소인 BBQ가든에서 열리며 홍청일 박사 동문이 노년에 많이 복용되는 Generic drugs를 주제로 회원들의 건강 관리에 유익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예정이다.  
취재=김영원 총무(사대 67)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 “예술을 알아간다는 것은 작품과 만나 내면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 … 관습적인 시선 버릴 때 비로소 보인다”

## 윤용인(미대 87) 동문의 미술 감상과 뉴욕 미술

이 글은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시각으로 예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소과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업도 해보고 뉴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전시기획도 해보고 한국에서 큐레이터로 일해보기도 했으며 지금은 뉴욕에서 지내면서 뉴욕의 미술 경험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annyoon4200)을 오픈해서 운영중입니다.

미술교육의 정규 코스인 예고와 미대를 진학하면서 입시미술이란 형식의 테크닉 위주의 교육을 받았던 저는 처음 뉴욕으로 가서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의 미술을 접하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 많은 갤러리와 뮤지엄에서 너무도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볼 수 있었으며 뉴욕의 미술은 개인적인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장르를 넘어서 자유로운 미술과 과장한 작품들이 인정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진정한 창작에 대한 고민을 늘상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뉴욕 미술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미술에 관한 일을 하고 싶던 시기에 첼시에 갤러리를 오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작품을 했던 저는 저 나름대로 첼시의 상업적인 갤러리와는 다르게 순수한 의도로 전시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의도가 통해서인지 우연히 뉴욕타임즈 비평가가 와서 알아봐주고 그 많은 갤러리들 사이에서 두 번이나 뉴욕 타임즈 전시 리스트에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은 저처럼 자본도 뺄도 없는 새로 오픈한 갤러리라도 순수한 의도와 독창성을 보이면 관심을 가져



뉴욕의 미술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윤용인 동문.

주는 기회의 도시였고 외국인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입권 없이 예술성 하나로 통할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첼시에서 갤러리 일을 하면서 알게된 뉴욕 미술은 자본과, 컬렉터, 비평가, 작가들이 균형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자유로운 비평의 환경 속에서 신문 잡지 등에서 매일 비평글을 볼 수 있으며 뉴욕에서 잘나가는 작가라도 혹독하게 혹평을 받기도 하고 무명 작가도 재능을 보이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미술계에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뉴욕은 크게 주목 받은 작가

들 뿐만 아니라 신인 발굴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뉴욕은 안목있는 미술계 인사들로 인해서 아트 메카라는 타이틀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큰 이점을 주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선택과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취향과 안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리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목을 키우는 것이 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컬렉팅에는 관심이

신감을 얻게 하고 인생에서 자신을 알아가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컨템포러리 아트는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갖가지 재료와 주제, 온갖 양식, 형식과 의도가 영겨있어서 중심이 없다면 컨템포러리 아트의 홍수에 떠내려 가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예술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진정한 아트를 가려서 봐야 됩니다. 세대가 지나도 계속 인정받는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안목을 가진 눈이 절실

## 첼시서 갤러리 운영, 뉴욕타임스에 전시 소개 독창적이고 다양성 중시하는 ‘아트 메카’ 뉴욕 작품 이해하고 감상 돕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있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 합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의 배경과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 작품 하나하나를 탐험하고 느끼도록 모험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깨우치는 모험입니다.

미술에 관한 일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작품성을 알아볼 수 있는 키 포인트는 미술품을 감상할 때도 작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입견과 관습적인 시선을 버릴 때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작가의 기술이 뛰어난지, 조형미나 완성도가 있는지 등으로 보고 싶어하는 미술을 머리에 그려 놓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보면 작품과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워 집니다. 하지만 작가의 다양성과 깊이를 받아줄 수 있는 오픈마인드의 자세로 감상하면 차츰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작가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감각의 문을 열고 온몸으로 감지하는 미술감상이 반대로 자

한 시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대중의 눈도 변하기 마련인데, 대중의 눈높이에만 맞추는 작품은 잠깐 반짝하는 작품이 되기 쉽습니다. 작가의 확실있는 예술성이 대중을 리드 하는 것이지 대중을 따라가는 아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갤러리일을 하고 두 나라의 미술을 경험하면서 미술에 대해 알고싶은 분들에게 시각의 다양성과 예술성이란 중요한 기본 가치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뉴욕 전시를 소개하고 작가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작품을 이해하며 미술감상을 돕는 채널입니다.

예술을 알아간다는 것은 작품과 나와 의 만남에서 내면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긴 여정에서 저의 경험과 이야기가 미술 감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윤용인 동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있는 전시회 관련 영상들.



지난 3월16일 열린 남가주 서울의대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서울의대 이사장에 김성환 · 회장에 김자성 동문

### 신년하례회 겸 총회 열어

남가주 서울의대 동창회는 지난 3월16일 오후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아로마 센터에서 9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

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겸한 총회를 열었다. 오랜만의 만남이어선지 동문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중단됐다 다시

만난 이날 모임에서 김성환 동문(65)이 새 이사장에, 김자성 동문(79)이 회장에, 안상훈(88) 동문이 재무에 선임되었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전경배(69) 북미주 의대 동문회장과 이상강(70)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의 축사도 있었다. 1부 신년 하례식 끝에는 나두섭(67) 동문의 전체 기념촬영이 있었고, 2부에서는 노래와 춤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과 우정을 다졌다.

## 바둑 모임 서기회 ‘아쉬운 패배’



서울대기우회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서기회 동문들이 대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줄 오른쪽 3번째가 최진석 동문.

바둑을 사랑하는 남가주 동문들의 모임인 서울대기우회(이하 서기회 · 회장 최진석 전 남가주 법대 동창회장)가 지난 2월 29일 온누리교회 바둑실에서 교회 바둑팀과 친선 바둑대회를 가졌다.

서기회 20여명의 동문이 참가해 접전을 벌였으나 아쉬게도 온누리교회팀에 2대3으로 패했다. 다음 대회는 하반기(9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기우회는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방석훈, 제영혜, 김순원, 이호진, 이종묘, 이안순, 성주경, 한효동 동문.

## 말수회, 평통 기금 모금대회 출전 88세 방석훈 동문 최고령 참가상

남가주 골프 동호인 모임인 말수회 회원들이 지난 3월4일 로스코요테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 민주평통OCSD주최 골프토너먼트에 출전했다. 말수회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골프를 치는 동문 동아리로 이번 대회는 평화 통일을 위한 차세대 모국 방문 안보 투어 기금 모금을 위한 대회로 열렸다.

이날 준비위원으로 제영혜(생과대 71) 동문이 수고했고 대회에는 남성팀, 여

성팀 각 한 팀씩 출전했다. 말수회장인 한효동(공대58) 동문을 비롯해 방석훈(사대55), 성주경(상대68), 백옥자(음대71) 동문이, 간호대 김순원(68), 이종묘(69), 이호진(74), 이안순(78) 동문이 참가했다. 여성 동문들이 분홍색 티셔츠를 맞춰 입어 단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핸디 20인 방석훈 동문은 88세로 최고령 참가상도 받았다. 이종묘 동문은 여성 장타상을 받았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a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 주가 상승 이끈 7개의 주식 ... 생성형 AI가 불붙어

플로리다 애틀랜틱대(FAU) 경제학 교수인 윤기향(법대 65) 동문은 지난해 시와 소설, 그림과 영화 등을 인용해 경제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쓴 영문 책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를 펴냈다. 앞서 2016년에는 이 책의 기초가 된 '시가 있는 경제학'을 한국 김영사에서 출간해 호평 속에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다양한 경제 얘기를 쉽게 풀어쓴 윤기향 동문의 '예술이 있는 경제학' 코너를 새로 마련했다.



## 영화 '황야의 7인'과 Magnificent Seven 주식들

윤기향 (법대 65)

세계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2024년 들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30개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구성된 다우존스(Dow Jones Industrial Average) 지수는 지난 3개월 여 동안 20차례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제는 40,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술주가 주축인 나스닥(NASDAQ)과 미국 500대 기업들의 주가를 가장 평균한 S&P 500도 상황은 비슷하다. S&P 500은 2024년 2월 9일 5,000선을 넘어섰다.

미국만이 뜨거운 것은 아니다.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 시장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내리막길은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추락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본경제의 계속되는 불황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었고 다시 그것은 '잃어버린 30년'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경제가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러 되자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세 개의 화살'을 꺼내들었다. 그 세 개의 화살은 무제한의 양적 완화, 적극적인 재정지출, 그리고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었다. 아베 총리가 쏘아올린 이 세 개의 화살은 그동안 과녁을 향해 날아가다가 드디어 과녁 가까이 꽂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주가는 2011년 11월 25일 8,160.01로 협곡의 맨 끝으로 떨어진 이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2일 35,000선을 돌파했고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 그로부터 불과 40일 만인 2월 22일 39,098.68을 기록함으로써 이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곧 이어 3월 4일에는 40,000선도 돌파했다. 이로써 주가로 대표되는 일본경제는 30여 년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대만 주식도 일본 주식만큼 극적인 드라마는 아니지만 광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주가만이 아직도 박스권에 갇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혀 게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과 같은 선진국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주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라는 말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분석가인 마이클 하트넷(Michael Hartnett)이 2023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1960년에 만들어진 서부활극 영화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4년에 만든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한 영화다. 한국에서는 '황야의 7인'이라는 타이틀로 1972년에 상연되었다. 지금 70~8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영화이며 아직도 몇 장면들이 어렵풋하게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존 웨인, 게리 쿠퍼, 로버트 미첨, 앨런 랫드 등이 멋진 총잡이로 등장했던 정통 서부극이 스파게티 서부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만들어진 서부극이라고 볼 수 있다. The Magnificent Seven은 우선 쟁쟁한 주연급 배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압도적이다.

감독은 존 스테이지이고 올 브리너, 스티브 맥퀸, 찰스 브론슨, 로버트 본, 브래드 텍스터, 제임스 코번, 호스트 부흐홀츠 등이 7인의 총잡이로 나온다. 그리고 일라이 월랙이 악당 칼베라의 두목

으로 분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인 서부극의 패턴을 보여준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 매년 칼베라라는 악당 패거리들이 나타나 수확한 양식을 빼앗아 가는 등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자 마을 주민들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총잡이들을 구하러 도시로 나간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딱하게 여긴 총잡이 크리스 애덤스(올 브리너 분)가 주민들의 요청에 응해 나머지 총잡이들을 규합해서 마을을 악당들로부터 구해낸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최근 미국 주가 상승을 주도해온 일곱 개의 주식을 일컫는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a), 메타(Meta), 테슬라(Tesla),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 구글의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그리고 애플(Apple)을 포함한다. 왜 하트넷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객들이 마을에 나타난 악당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그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듯이 투자자들도 이들 주식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실적을 보고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우선 이들 주식들이 2023년에 보여준 실적(2023년 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러한 통쾌함을 실감할 수 있다. (괄호인 숫자는 각 주식의 1/3/2023 시세와 3/21/2024 시세를 나타냄): 엔비

디아: 239% (143.15→914.35); 메타: 194% (124.74→507.76); 테슬라: 102% (108.10→172.82); 아마존: 81% (85.82→178.15); 알파벳: 59% (89.70→148.74); 마이크로소프트: 57% (239.58→429.37); 애플: 48% (125.07→171.37). S&P 500 지수는 2023년 24%가 상승했다. S&P 지수가 한 해에 24% 상승한 것도 놀랍지만 이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2023년에 S&P 500보다 최소한 두 배 넘게 상승했으니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으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에게 꿈의 주식으로 여겨졌던 애플과 테슬라가 최근 들어 비슬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황야의 7인의 총잡이들 가운데 총을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의 놀라운 실적은 Chat GPT가 불을 붙였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감에 따라 생성형 AI집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천정 모르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주식도 덩달아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거시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다시 미국경제에 찾아왔다.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CPI)는 2021년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2년 1월 물가상승률은 7.5%(연율)로 상승했는데 이는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경기후퇴가 아니라 물가를 잡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연준의 노력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심리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주가 랠리는 이러한 거시경제의 추세를 반영한다. 주가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그 목표치를 상회하면 이를 잡기 위해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취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후퇴(리세션)도 잡았고 인플레이션 심리도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금리 인하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 진단 및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기여 가능



뉴잉글랜드 의료인공지능, 지금까지의 발전 김경수(공대 06) 박사

지난 3월15일 뉴잉글랜드 포럼에서는 김경수(공대06) 박사가 '의료 인공지능, 지금까지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김박사는 현재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다. 강연에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는지, 의료 영상 및 생체 신호 진단, 신약 개발, 유전자 및 병리 영상 기반 환자 맞춤형 암 진단 기술 등을 포함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최전선을 소개한다.

일반 인공지능은 시청각 정보, 텍스트를 입력 받아서 컴퓨터 코드로 처리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또한 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각 의료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컴퓨터 코드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 방사선 데이터, 영상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약물 데이터, 세포 영상 데이터 같은 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핵심 의미는 각 도메인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시키는 역할이다. 각 도메인 간의 융합을 달성하는 핵심 다리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영상이 있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특정 바이오 마커와 연관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기존에는 두 데이터의 성질이 워낙 달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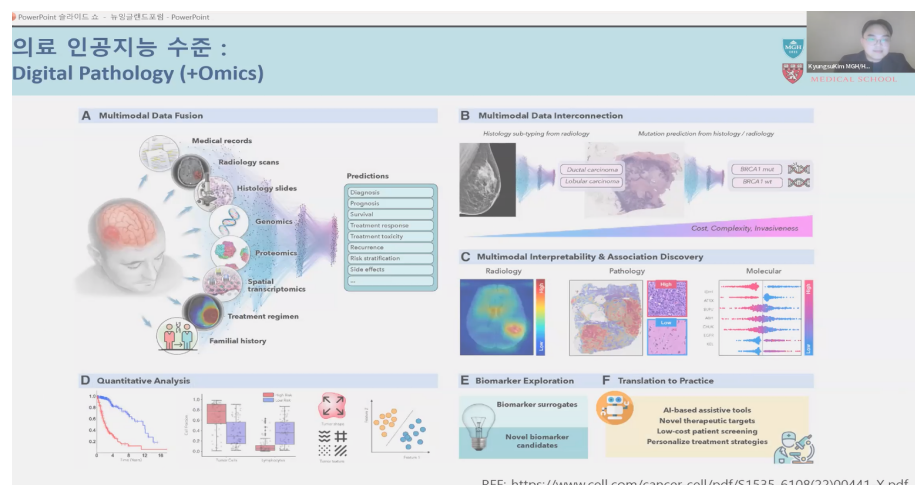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는 각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컴퓨터 코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 컴퓨터 코드는 결국 하나의 표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안에서는 서로 결합해 분석하면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컴퓨터 코드로부터 멀티 모달, 여기서 말하는 멀티 모달이라는 것은 방사성 유전자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어떤 후처리를, 다른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의 의료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 의료 AI, 어디까지 왔다

병리 분야에서도 단순히 병리 영상 뿐만 아니라 지놈릭, 단백질의 어떤 형질, 의료 영상, 판독지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융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병리 영상에서 AI의 진단 분석을 위한 특별한 라벨이 없음에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됐고 이는 AI가 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됐다. 방사선 영상에서도 3D의 CT 슬라이드나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질환이 있는지 맞출 수가 있게 됐다. 유전자 정보까지 같이 활용해서 암의 특정 픽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뉴잉글랜드포럼은 하버드 병원의 김경수 박사를 초청해 현재까지 발달된 의료AI에 대해서 들었다.

## 단백질 3D 화면 분석 통해 신약 개발 분야별 데이터 통합 분석해 진단 가능

### 의료 AI의 상용화

연구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향후에 상용화돼서 좋은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기에 챗GPT가 응용되면서 놀라운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셀과 셀의 관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서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고 있고 병리 영상을 상용화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의 대표 의료 AI 회사인 루닛이다. 루닛에서 암세포를 하나하나 감지할 수 있는 스코프를 개발했다.

pd-11은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로 이를 갖고 있는 암세포는 우리 몸의 항암 세포인T세포에 내성이 강한 암세포라고 간주할 수 있다.pd-11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인지 아닌지를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 보라색은 pd-11을 가지고 있는 타입의 암세포를 나타낸다.파란색은 pd-11을 갖고 있지 않은 암세포를 나타낸다.또한 암세포 포함 여부를 알려주는 스코어가TPS(Tumor Proportion Score)인데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진한 보라색으로 보여서 내성이 높은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TPS수치가 낮은 부분에만 면역 항암제 치료를 처방하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제공한 것이다.

AI를 활용한 유전자 표현이 가능해진다.유전자에 대해서 정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유맵으로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다양한 유전자에 대해서 정밀하

고 자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됐다.앞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AI를 통해서 컴퓨터의 코드로 나오는 기술이 하나씩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AI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 신약 발견

신약 개발에서 단백질이나 화합물에 대한 3차원 구조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단백질에 대한 3차원 구조를 단백질 서열만 알면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 고도화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타겟 단백질과 약물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타겟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AI로부터 알 수 있고 약물에 대한 3차원 구조도 알고 있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타겟과 약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른 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다.암세포가 nk세포(내추럴 킬러 셀)이 너무 강하면 NK세포 주변에 많이 있어도 무시하고 암이 자랄 수 있어서 문제가 됐다. NK세포를 많이 복제해서 주변에 많이 넣어주면 암세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AI의 신약 개발 기여하는 바는 새로운 NK 세포를 유전자의 조작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면 암세포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개발사인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단백질과 분자 구조를 예측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암젠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슈퍼 컴퓨터를 미국에 설치할 하는 것을 올해 1월에 시작했다.신약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조합인 레드넷에서 주관했다는 AI가 앞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모그램 나우' 라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월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다.의사가 없는 곳에서도 유방암 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스트 x-레이를 AI에게 읽히면 챗GPT와 결합된 진단 솔루션이 진단표를 작성해주는 기술이 나왔는데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매드 샘이라는 기술은 의료 영상이 들어갔을 때 원하는 구간을 AI가 추출해 줄 수 있다.수술 영상에서 시야를 가리는 수술 도구를 삭제하면서 가려진 부분을 가상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이 나왔다.

치과에서 쓰이는 3차원 의료 영상을 생성해 주는 콘빔CT는 차폐 시스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선량을 쓰지만 연조직에 대해서 사실상 영상이 좋은 성능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뼈조직만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치과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최근에 AI 기술을 통해서 화질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현재는 CT급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국 CT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게 되며 이는 좀 더 값싸게 CT급의 의료기기를 AI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병리 영상이든 여러 가지 각각 유전자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컴퓨터 언어로서 표준화가 돼서 다양한 태스크 분석이 향후에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이 있듯이 다른 분야에도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혈액 뿐만 아니라 매모그램에 대한 체인점이라든가 여러 개인 정보 데이터들을 유전자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각자 개인에 해당하는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장병희 편집위원

# 테슬라 한번 투자해볼까 ... 자율 주행 3년이면 완성



시애틀 전기차와 테슬라 한홍택(공대 60) 박사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나타나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로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이전의 전기자동차는 개솔린 자동차의 막강한 장벽에 막혀 흐지부지 됐던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모빌리티의 한 축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때는 개솔린 자동차회사의 시총을 모두 합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시가총액을 차지했던 적이 있다. 호암상 수상자인 한홍택 박사가 지난 3월9일 SNU포럼에서 테슬라에 대해 강연했다. 다음은 강연 요약이다.

전기차의 선도기업인 테슬라의 플랜을 알아본다. 특히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세미나를 한다.

우선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의 하나로 내연기관차를 안 쓰고 전기차를 쓰면 CO2 방출이 줄어드니까 온난화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류가 에너지를 연간 165페타와트를 쓰는데 1/3만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화석 연료를 피하려면 전기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는 30테라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는 2테라와트 수준이다. 운송 및 저장된 배터리 용량은 대략 240 테라와트가 필요한데 현재는 1테라와트 수준이다. 배와 자동차, 비행기를 전기로 움직이려면 대략 115테라와트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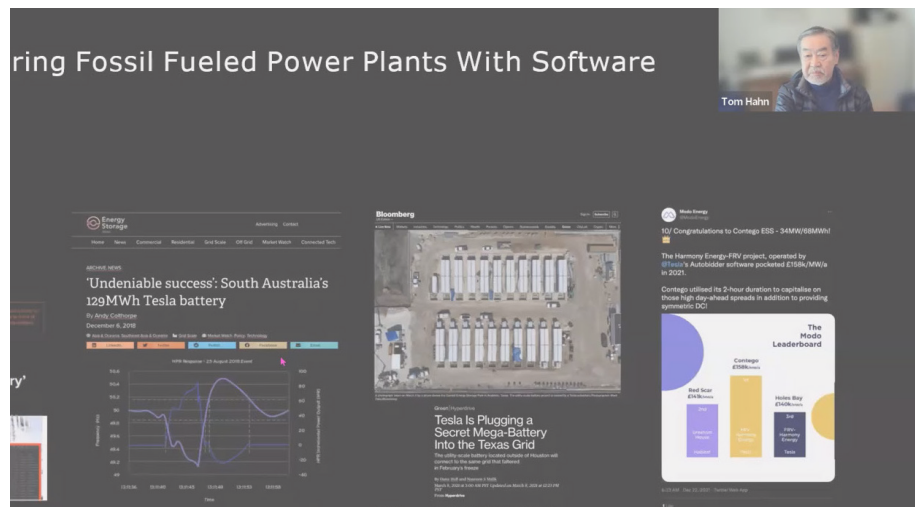
이러면 총 화석 연료 사용을 21% 줄일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제조업에는 앞으로 7조달러가 필요하다.

2021년 전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 비록 중국이 가장 많지만, 한국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일본보다도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된다. 이미 2023년에는 1000만대가 넘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대략 1200만대가 넘는다고 보고 선형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2030년에는 50%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왔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적 경제적 도움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 목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운영 경비도 적고 운전 경험이 매우 좋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다.

석유가 워낙 많이 나와서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필요하다. 특히 기술 비약이 성공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테슬라는 무엇을 하나. 테슬라가 다른 차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디테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언론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살펴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기술 적용이 치열하다.



최근 열린 SNU포럼에 한홍택 박사가 테슬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 전기차 시장 완성되면 에너지 21% 절감 테슬라 차세대 모델 더 싸고 효율 높아져

테슬라의 디자인, 모터, 배터리, 전기 설계, 소프트웨어(자율 주행 등), 충전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 문제 해결, 매뉴팩처링, 오토메이션 등을 살펴본다.

테슬라의 자동차 디자인은 모델 S로 시작됐다. 먼저 디자인을 하고 이를 서포트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을 진행했고 모터의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하고 완성했다.

그런데 모델3를 만들 때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을 동시에 했다. 이후에 제조과정의 오토메이션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4가지를 동시에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제조단가가 줄어든다. 조립도 현재는 스탬프의 컴포넌트를 찍고 다음에 바디를 만들고 페인트하고 최종 조립을 하는데 이제는 컴포넌트 모두 합쳐서 제작하게 된다.

소위 오비스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모델 3와 모델 Y까지는 만들었고 다음에 나오는 2만5천달러대 모델부터는 오비스트 프로세스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작업 밀집도(Operator Density Improvement)가 44% 늘릴 수 있고 작업의 공간과 시간도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용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파워 트레인은 어떻게 하나. 처음에 모델 S가 나왔을 때 포르쉐보다 더 빠르고

킬로와트 당 마일리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더 개선할 예정이다. 모델Y는 4마일이 나왔는데 이는 포르쉐, 아우디, 재규어, 포드 보다 좋다.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트레인을 가볍게 한다. 무게를 줄일 수 있다. 희소류 사용도 줄이고 공장 면적도 줄이면서 생산 원가를 줄인다. 2017년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65% 줄었다.

언론에서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데 이유는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소비자들이 차를 더 사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격을 내리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또한 테슬라에서 가격이나 원가를 줄이는 데 쓰는 접근법(어프로치)이 홀리스틱 씽킹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엘렉트로닉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 모델에서는 엘렉트로닉 아키텍처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 컨트롤러의 경우 모델 Y의 61%정도인데 다음 세대의 모델은 100%를 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세대 모델에는 반도체는 75%를 줄이고 배터리 소재는 구하기 쉬운 것으로 제작공정은 50%를 줄이고 파워

트레인을 1000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희소류 사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에 나온 사이버 트럭은 85%가 자체 디자인한 컨트롤러를 쓰고 있으며 파워를 줄이기 위해 현재 12볼트에서 48볼트 시스템으로 모두 바꾸게 된다. 이러면 파워에 필요한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 전선의 무게가 1/4로 줄어든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혁신이 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리콜은 없고 대개 소프트웨어 리콜인데 이것은 서비스센터에 갈 필요없이 그냥 집에서 업데이트가 된다.

셀프 드라이빙(자율 주행차) 부문도 살펴보면, 테슬라 드라이빙 데이터가 필요한데 테슬라는 굴러다니는 차량이 숫자가 많아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다. 이는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훈련시키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셀프 드라이빙은 테슬라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다.

셀프 드라이빙을 하려면 AI 모델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된다. 테슬라만큼 다 갖춘 회사가 없는 것 같다. 셀프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허가할 것으로 본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그런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처음부터 테슬라 차징 스테이션 시작해서 거의 100% 차지를 할 수 있다. 테슬라 차징 스택다드이고 채택 안 한 회사가 없다.

보급 정책도 뛰어났다. 슈퍼 차저의 경우 호주에서는 35%, 캘리포니아는 5%, 뉴욕 75%가 더 싸게 해서 설치에 나서게 했다. 가정용도 경쟁사에 비해 북미에서는 20%, 유럽에서는 50% 저렴하게 보급했다. 싸게 설치한 이유는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설치하므로 저렴했다.

충전시간과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식시장에 처음 나올 때에 비하면 145배나 올라 갔다. 현재는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 지옥과 천국은 한 끝 차인가

## 장병희 동문의 도미니칸 공화국 여행기

평소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박 동문(익명 요청)의 제안으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이전과 달라졌다. 독자들이 모두 개신교 신자가 아니므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오고 갔던 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과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에 초점을 뒀다.

### 콜럼부스가 첫 발 디딘 곳 서쪽엔 ‘생지옥’ 아이티 남민 돕기 사역 활발

도미니카 공화국은 야구를 잘해서 유명한 나라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새미 소사, 애드리안 벨트레, 매니 라미레즈 등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메이저리거들이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 야구장을 하나씩 지어 기부한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메이저 리거라는 꿈을 나눠주는 것이다. 게다가 메이저리거 야구팀의 훈련장, 스카웃 센터 등이 여러 곳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야구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캐러비안에는 ‘도미니카’라는 지명이 2곳이 있다. 도미니카가 일반 명사인 일요일(Domingo)에서 나와서 그렇다. 큰 곳이 쿠바 동쪽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Republica Dominicana)이고 그 동쪽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그 동쪽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가 있다.

거기서 남동쪽으로 안티쿠아, 그 남쪽에 도미니카 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이 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콜럼부스의 미대륙 발견은 정확히는 히스파니올라섬을 발견한 것이다. 콜럼부스 집안은 그래서 손자까지 총독을 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캐러비안해에서 쿠바가 가장 큰 섬이고 그 다음이 쿠바 동쪽에 있는 히스파니올라섬이다.

히스파니올라섬은 서쪽은 아이티(아이티), 동쪽은 도미니칸 공화국(이하 도공)이다. 맞다. 약명 높은 아이티가 서쪽에 붙어 있는 곳이 도공이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티는 프랑스령이었고 도공은 스페인령이었다.

같은 섬에 식민 지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됐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을 대량 살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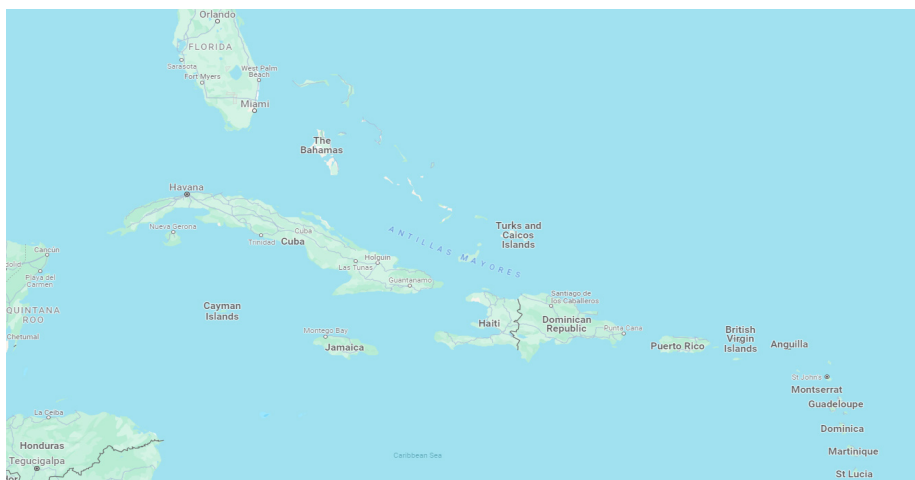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주시켰다. 다른 점은 프랑스는 노예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식민지를 운영했고 스페인은 혼혈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아이티는 프랑스어의 파생어쯤 되는 크레올어를 쓰고 도공은 스페인어를 쓴다. 크레올어는 말소리와 문법 틀이 바뀌어 프랑스어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행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아이티는 1인당 연소득이 1800달러이고 도공은 8500



콜럼부스 동상 앞 광장에서 일행과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필자, 스티브 선교사, 이은혜 선교사, 박광철 목사부인 이상은 사모, 박광철 목사, 준 김 선생, 조영선 목사, 박 동문.



마이애미 남쪽에 쿠바 섬이 있고 그 동쪽에 아이티/도미니칸공화국(히스파니올라섬)이 있고 남동쪽에 도미니카 연방이 있다. (구글 맵스)

달러 수준이다.

여행 중 궁금한 것이 생겼다. 아이티 하면 대지진이 유명하다. 같은 히스파니올라섬에 있는데 한 쪽은 지진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다른 쪽은 그 구호물자를 공급하느라 큰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챗봇에게 물어봤다. 챗봇의 대답은 이렇다.

“첫째 같은 섬이지만 지질적으로 동서가 다른 구조였다는 것과 둘째, 도공은 내진 설계를 철저히 지켰지만 아이티는 대중 지어서 지진의 충격으로 (마치 팬케익처럼) 무너져 내렸다” 고 답한다.

#### #첫째날

지난 3월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밤 비행기를 탔다. 로스앤젤레스(LAX)에서 도미니칸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SDQ)까지는 직항노선이 없다. 뉴욕을 경유해 8일 오후 1시 산토 도밍고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산토 도밍고로 갈 수 있는 출발지는 대략, 마이애미, 뉴욕, 휴스턴이라고 한다.

산토 도밍고는 마치 하와이의 호놀룰루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 미국 관광객 덕분인지 만석이였다. 델타 항공의 기내 방송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기내나 공항이나 한국인은 커녕 동양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

다.

기온은 화씨 75도 밖에 안됐는데 습도가 한국의 6월 즈음 되는 듯했다. 공항에서 처음 본 식당은 스타벅스와 버거킹이었다. 도공의 인구가 대략 1100만 명인데 관광객은 연간 10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중 상당수가 미국인들이다. 고향의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반겨주니 좋을 것 같다. 옆자리에 앉은 흑인 남성에게 휴가냐고 물으니 2주짜리 휴가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 즐겁게 많은지 궁금했다.

이 나라의 2가지 수입원은 바로 관광 수입과 야구 선수들의 본국 송금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리더인 박 동문, 필자, 은퇴한 의사인 준 김 선생님이다. 김 선생님은 향후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한 정보를 이번 여행에서 얻었다. 도공은 금수조치로 배고픔을 참지 못할 정도인 쿠바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지만 선교 사역이 필요한 곳이다.

왜냐하면 무능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생지옥’으로 불리는 아이티 사람이 150~200만명이나 피난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섬에 있는 두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차이가 아니고 남미 대륙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상의 차이가 난다.

#### #둘째날

9일. 현지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가 중심이 돼 한국 교회나 미국 한인교회에



아이티 가정의 아이들이 방문객인 박 동문과 손인사를 하고 있다.



하버드대 치과대학원 봉사팀이 어린아이에게 치과 진료를 하고 있다.

서 현지 도공의 저소득층 주민이나 아이티 피난민 커뮤니티에게 개신 교회를 새로 지어 주는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이다. 총 58개가 진행돼 현재 동시에 3~4곳의 교회가 건축 중이다. 우리 일행은 이날 오전 58번째 교회를 방문했는데 콘크리트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또 다른 사역은 '우물사역'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 수단에 한인들이 우물 파주는 사업에 대해서 안다. 우물당 3000달러를 받고 기부자 대신 우물을 파준다. 하지만 도공에서는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가 주도해 수만 달러짜리 우물파는 기계를 사용해서 우물을 파준다.

아프리카 우물은 현지인들에게 기계 작업 대신 일당을 주는 한국식 취로사업 스타일로 사람이 삽으로 파게 한다고 알고 있다.

처음에 열대 지방인데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됐다. 우기는 물론 건기에도 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부족했던 것이다. 도공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한다.

양치질 조차 정수된 물로 하라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함부로 물을 먹고 한 달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다.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가 지어준 교회 중 한 곳에 가보니 우물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토요일 방과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부색이 아주 진한 어린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외부 방문객을 자주 접했는지 다가와서 안겼다. 손도 마주쳤다. 마치 원로 연기자 김혜자씨가 아프리카의 구호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먹먹함이 이런 것이리라. 미국에 살면서도 아주 진한 피부의 사람들과 악수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의 손은 매우 촉촉했다. 이런 방문과 만남을 실제로 겪었지만 글로 형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자기 나라를 떠나 도공에 와서 사는 아이티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의 현실 적응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 것은 도공 정부가 공립 학교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을 현대식으로 말끔하게 짓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연

봉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의 2배에 달해 교사직으로 엘리트들이 몰리고 있다. 엘리트 교사를 통해 엘리트 시민이 탄생하면 가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외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가 돕고 있는 사역을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비즈니스맨 출신의 한인이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싱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금융업의 하나로 아주 적은 액수를 신용 융자해줘서 가난한 가정이 자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사업이다.

현재 530개의 가난한 가정에 1년 기한으로 300달러씩 융자해주고 있다. 담당 사역자는 곧 700개의 가정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식사는 콜리나 센트로(Colina Centro)라는 현대식 쇼핑몰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해결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수준은 매우 높았다. 도공이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셋째날**

3월10일 일어나보니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작됐다. 원래 도공은 뉴욕의 EST와 1시간 차이였는데 뉴욕과 시간이 같아졌다. 덕분에 로스앤젤레스와의 시차는 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도공에 와서 놀란 것은 미국 셀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캐나다 같이 에어리어코드 (809)(829)(849)를 썼다. 필자의 셀폰 캐리어가 티모빌인데 해외 로밍이 됐다. 현지 통신회사는 클라로(Claro)를 이용해 로스앤젤레스에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었다. 다만 데이터는 안됐다.

필자는 백업 전화로 해외 데이터 플랜을 10일 한정 35달러짜리를 미리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주효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와이파이가 아니고 백업 전화기의 해외 데이터 플랜으로 올린 것이다.

마침 일요일이라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도미니카 한인 교회'를 찾았다. 5층 짜리 현대식 건물의 4층과 5층을 사용했다. 산토 도밍고에는 딱 한 곳의 한인 교회가 있었고 제2의 도시에는 2곳이라고 들었다. 마침 교회의 한 권사님이 철순을 맞아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일행과 함께 참

석해 귀한 미역국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호텔 부패 수준의 잔치상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올드 다운타운을 방문했다. 스페인식 오래된 건물과 시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생각보다 기온이 높아서 크리스토폴 콜론(크리스토퍼 콜럼부스) 동상이 있는 조그만 광장에서 현지인들의 일요일 일상을 엿봤다. 그늘 아래에서는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제법 불었다. 사람들이 전쟁 같은 것을 별로 겪지 않아서 그런지 매우 착하고 순해보였다. 16세를 맞아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작가와 조수 역할을 하는 아이 엄마가 햇빛에서도 좋은 컷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광장에 있는 성당은 이곳이 천주교의 국가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정오와 오후5시에 미사가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부 구경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감사하게도 현지인이 우리 일행을 초대했다. 고향도 아주 먼 이역만리에서 오카주(Okazu Nordic Japanese)라는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 받았다. 산토 도밍고에는 있는 단 2곳의 일식당 중 한 곳이다. 나머지 하나는 일본인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니 매우 훌륭했다. 식자재는 대개 뉴욕에서 공수해왔다고 한다.

**#마지막 날**

11일 귀국 길에 오르기 전에 이틀 전

도착한 치과 사역팀의 사역 현장을 둘러 보게 됐다. 치과 사역팀은 하버드 치과대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전날은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 인근에서 치과 진료를 했고 이날은 역시 월드그레이스미션센터에서 건물을 지어준 교회에서 치과 진료를 했다. 수많은 주민들이 무료 치과 진료에 몰려와 현대 의학의 혜택을 누렸다.

귀국을 위해 돌아온 공항 풍경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았지만 미국에 들어가는 여행편이어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저한 검색이 있었다.

도공에 올 때와 달리 오후 4시에 아메리칸 항공편으로 마이애미를 향해 출발해서 오후 6시 30분 쯤 마이애미에서 입국 수속을 하고 역시 아메리칸 항공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으로 새벽 1시에 LAX에 도착했다. 5시간 가까이 비행했다.

로스앤젤레스-산토 도밍고 왕복 항공료는 236달러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박 동문과 각각 500달러에 티켓을 샀고 김 선생님은 며칠 후에 구매해서 700달러였다고 한다.

서부에서 동부 가는 정도의 항공료다. 만약 서부에서 도공에 가는 것을 계획한다면 3주전에만 예약해도 보다는 더 좋은 금액이 가능할 것이다.

박 동문이 도미니카 선교 봉사(아이티 난민돕기)에 관심 있는 동문들은 전화(213-247-9116)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물 사역에 쓰이는 우물 굴착기 모습을 창고에서 찾아냈다.

# 철인 3종 완주 김재평 동문 “아이언맨 꿈 이뤘다”

김재평(대학원 수학과 95) 동문이 지난해 철인 3종 경기를 해냈다. 71년생 이므로 53세였다.

김재평 동문은 체구가 크고 근육질인 신체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고교를 졸업하고 심장에 있던 구멍을 수술했던 심장 질환자였다. 그래서 그를 어려서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크게 놀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거의 기적같은 일이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김재평 동문이 2010년 동달모라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의 마라톤 모임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지만 꿈은 오래됐다.

김 동문은 어릴때 TV에서 다큐멘타리를 시청하다가 철인 3종 경기에 대해 알게 됐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심장이 안좋아 수술까지 했기에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가진 자신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라고 여겼지만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동경은 그때부터 싹텄다. 2010년 어바인으로 이주해오면서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하고 싶어 동달모에 입회했다. 철인 3종경기를 소개하러 온 KATT(미주 한인 철인3종팀)와 인연을 맺었다.

2016년 오션사이드 철인3종 대회에서 하프부문에 처음 도전한 이후 풀코스 완주는 절대로 못할 줄 알았다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음을 밝혔다.

지난해 10월22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철인대회에서 그는 드디어 완주에 성공했다. 아이언맨이 되겠다던 어린 시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함께 도전했던 동호인 지성호씨는 만74세여서 두 사람의 쾌거는 한인 신문에 도 크게 기사화 되기도 했다.

철인 3종 경기는 2.4마일을 수영으로, 112마일을 자전거로 주파해야 하며 26.2마일 마라톤 풀코스를 총17시



김재평 동문이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손기정옹의 동상 옆에서 포즈를 취해보고 있다.

## 수영 2.4마일, 사이클 112, 마라톤 26.2마일 지난해 새크라멘토 대회서 14시간 38분 기록 보스턴, 베를린, 뉴욕 등 한해 마라톤 6개 완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무엇보다 기뻐”

간이내에 끝나야 한다. 김 동문은 14시간38분, 함께 참가한 지씨는 15시간 14분7초를 기록했다. 그는 “어렸을 때 막연히 꿔던 꿈을 새크라멘토에서 실현해 뿌듯하다”며 “가장 기쁜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이라

고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KATT에 따르면 지씨는 올해 전세계에서 열린 아이언맨 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70세 이상 한인 출전자 가운데 3번째로 완주했다고 한다.

김 동문의 이번 기록은 50-54세 남

부문 참가자 266명중 207등, 남성 참가자 1690명중 1379등, 전체 2161명 참가자중 1671등이다.

주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지난해 김 동문의 마라톤대회 기록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3월19일 LA 마라톤(3시간38분26초)에서 생애 12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이며 대회 4번째 완주 기록을 세웠다. 그는 남자 50-54세 부문서 47등, 남성으론 830등, 전체 참가자 중에서는 946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4월16일 열린 보스턴 마라톤(3시간26분1초)에서 완주했다. 5월7일 열린 OC마라톤(3시간31분9초)에도 참가해 남성 50-54세 부문 9등, 남성으론 202등, 전체2070명 완주자중 231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9월24일 베를린 마라톤에 도전해 완주했고 한달 후인10월 22일 새크라멘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 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을 시간인 2주만에 뉴욕 마라톤(4시간6분36초)에 참가해 완주했다. 결국 김 동문은 뉴욕, 베를린, 보스턴 등 3대 메이저 마라톤대회, LA와 OC 등 남가주 2개 대회, 새크라멘토 철인3종 경기 등 총 6번의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웠다.

김 동문은 서울 중앙고를 1989년에 졸업하고 학부를 성균관대 수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심장 수술을 받고 모교 대학원 수학과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수학했다. 한국에서는 삼성SDS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카네기 멜론대학 대학원 수학과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포드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동갑내기 마라톤 동호인 오수희씨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함께 참가한 동갑내기 마라톤 동호인 부인 오수희씨와 김재평 동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철인 3종 경기 결승선에 김재평 동문이 양팔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비디오캡처]



# 농생대, 사회대, 의대 ... 대학 풍경이 달라진다

##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 활발 연건 의학도서관도 재건축

최근 모교 캠퍼스 곳곳에서 건설 공사 현장이 눈에 띈다. 노후한 건물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롯해 새로운 공간 수요를 반영한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수년 안에 캠퍼스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관악캠퍼스 농생대(201동) 제3학생식당 인근엔 연면적 1만89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구 복지관으로 불린 75동으로, 2021년부터 재건축 중이다.

올해 7월 경 완공되면 역사연구기록관과 본회 및 관악회의 사무공간, 농생대 강의실, 대학신문 편집국 등이 입주한다. 총 사업비 273억원 중 서정화 전 총동창회장이 마련한 한화의 기부금 50억원을 포함해 재단법인 관악회가 1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출연금(113억원), 농생대 출연금(60억원)도 소요됐다.

사회대(16동)에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신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1995년 지어진 16동은 1만6008㎡로 적지 않은 면적임에도 사회대 구성원이 활동하기엔 비좁았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냉난방 등 안전 문제도 빈번했다. 16동은 기



사회과학대학은 노후한 관악캠퍼스 16동 건물의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사회대 리모델링 조감도.

본 골조만 남기고 철거 후 외관과 내부 시설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사회대가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본회 김종섭 회장이 기부한 리모델링 기금 50억원이 마중물이 됐다.

중앙도서관 관정관과 자연과학관(56동) 사이 경사지에서 지난해 말 첫삽을 뜬 김철수 물리관(56-1동)은 이효상(물리66)·배수옥(농화학71) 부부가 은사의 이름으로 ‘고 김철수 교수 기념관 설립 기금’ 4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건립이 성사됐다. 2025년 완공 예정인 김철수 물리관은 4층 규모에 실험교육

과 집단 연구 공간, 아이디어 팩토리, 네트워크 라운지 등 학생 공간을 넉넉히 갖추고, 김철수 교수를 기리는 기념관도 들어선다.

음악대학이 1976년부터 쓰던 예술관 2(54동)와 예술관3(55동)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작한 리모델링을 올해 11월 마무리한다. 고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작으로 서울미래유산에도 지정된 건물인 만큼, 예술적인 가치와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공간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윗 공대’(301·302동)로 가는 길목엔 해동첨단공학관이 3년여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019년 고 김정식(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미국 MIT의 ‘AI칼리지’ 못지않은 AI 연구 시설을 만들어달라”며 500억원을 기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연면적 약 9994㎡, 지상 7층 규모로 비공대생도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실, 전시실, 강당, 창업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연건캠퍼스에선 동문들의 정성에 힘입어 새로운 의학도서관을 쌓아올리고 있다. 의대 본부와 경모궁지 사이 부지에 들어설 새 의학도서관은 연면적 1만5200㎡, 건축면적 2791㎡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의학도서관과 종합실습동, 학생 교육시설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1974년 건축된 의학도서관이 낡아서 총 공사비용 343억원 중 대학본부에서 83억원, 의대가 2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2014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2월 초 현재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5월 준공 후 가을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기숙형 대학 ‘LnL’ 확대를 위한 기숙사 7개 동 재건축도 추진된다. 그밖에 1990년 이전 준공된 모교 건축물 중 공대 대형강의동(43동), 약학관(21동), 반도체공동연구소(104동), 수원농장 본관동 및 유리온실 등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단계에 들어섰다.

# 신입생 3726명...여학생 36.8%, N수생은 26.5%

## 2024학년 모교 입학생 선발 수시 2181명, 정시 1545명 924개 고교서 1명 이상 배출

모교가 2월 초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24학년도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지었다.

최초 합격생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총 2181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으로 1545명을 선발해 총 3726명의 합격생이 나왔다. 총 924개 고교에서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1명 이상의 모교 합격생을 배출했다.

합격생 성비는 여학생 비율 36.8%, 남학생 비율 63.2%였다. 2014년부터 최초합격생 기준으로 39~40%를 기록해 온 모교 합격 여학생 비율은 문·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부터

다소 낮아진 모양새다.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출신은 35.4%였고, 광역시 출신은 21.8%였다.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최초 합격생 3726명 중 52.8%에 해당하는 1967명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일반고 합격자는 2022년 48.0%, 2023년 49.7%로 꾸준히 증가해 50%를 넘겼다. 정시 합격생에 한해선 61.9%가 일반고 출신이었다.

근래 들어 모교 합격생 중 고교 재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재학생 합격자 비율은 69.5%로, 2022년(74.3%), 2023년(70.7%)보다 하락했다.

반면 재수생 비율은 올해 18.7%로 2022년(14.9%)보다 높았고 삼수 이상 비율도 2022년 6.8%에서 2023년 7.4%, 올해 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재수생과 삼수생 비율이 높지 않은



1월 30일 관악캠퍼스 71동 체육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새내기대학에서 신입생들이 재학생 선배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에서 재수생과 삼수생 합격자 비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정시 합격생 중 재수생 비율은 40.4%로 재학생 비율(38.1%)을 앞

질렀다. 삼수 이상도 19.3%로 지난해(17.6%)보다 상승했다.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36명으로 2.1%였다.



김해원  
(인문대 언어학과 85 · 변호사)

지난 2월11일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제 58회 슈퍼볼은 스위프트볼이라고 불릴 수 있다. 달 착륙 중계방송 이후 가장 많은 시청자인 1억2천340만명이 본 이번 슈퍼볼은 경기 장면보다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이 더 많이 방송됐다. 그 이유는 슈퍼볼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타이트 엔드 트레이비스 켈시가 스위프트의 남친(남자 친구)이고 스위프트는 100만 달러 짜리 VIP석에서 남친의 경기를 직관했기 때문이다.

스위프트 덕분에 전세계 스위프트 팬들이 캔자스시티가 캔자스주가 아니라 미주리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리고 미국인들만 열광하는 풋볼이 전세계 최고의 스포츠로 업그레이드됐다.

슈퍼볼 역사상 역대 최다 시청자들을 불러모은 이번 경기에서 그런데 스위프트의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할 만한 장면이 대형 화면에 비쳤다. 즉, 켈시가 앤디 리드 감독의 작전 때문에 전반전

에 사실상 제대로 공을 만져보지 못하자 엄청 화를 내면서 리드 감독에게 2쿼터 도중 달려가서 소리를 치면서 밀치는 장면이 전세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켈시의 포지션인 타이트 엔드는 쿼터백으로부터 패스받아 상대 수비와 충돌해가며 전진하는 게 주요 임무다. 그런데 34세의 켈시는 아버지였던 65세의 백전노장 리드 감독에게 계속 공을 놓치는 동료 선수보다 자기에게 공을 달라고 쌍욕을 하면서 외쳤고 리드 감독은 켈시에 밀려서 거의 넘어질 뻔 했다.

이렇게 폭력적인 남자가 슈퍼스타의 남친이라면 어찌 하면서 그녀의 가족과 팬들은 잠시(?) 걱정했다.

그러나 켈시는 감독과의 이런 갈등을 뒤로 하고 후반전과 연장전에서 쿼터백 패트릭 마흐스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결정적인 러싱을 기록했다. 캔자스시티가 25-22로 샌프란시스코에게 대역전승으로 우승하자, 관중석에 있던 스위프트는 마치 실신이라도 할 것처럼 환호했고 그라운드에서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뜨겁게 켈시와 키스했다.

켈시는 흑인 민권운동인 BLM 추종

자이고 경기 도중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무릎을 꿇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날다운도 했을 정도로 진보주의자다. 그는 스위프트 전에는 흑인 여성들만 사귀었다. 또한 스위프트는 부창부수로 영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덕분에 달착륙 이후 최다 시청자를 기록한 올해 슈퍼볼.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승을 거머쥔 남자친구 트레이비스 켈시와 입을 맞추고 있다.

와 노래들을 통해 성불평등을 비판하는 페미니즘과 성 소수자를 응원하는 등 진보적인 정치성향이다.

켈시가 감독에게 대드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이 행동은 치프스가 후반전과 연장전에서 팀 동료들을 정신차리게 해서 역전승을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정작 리드 감독도 우승 뒤에

이 일을 문제삼지 않아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리드 감독과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축구팀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에 주장 손흥민과 9살 아래인 이강인 등 후배들과 다투는 추태를 부려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하는 참사를 빚었다. 영국의 더선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들이 탈구됐고 손흥민 등 고참들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을 요르단전 선발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축협)와 한국언론들은 더선이 보도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영국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일제히 보도를 하고 축협은 이를 금방 시인했다. 그러자 한국에서는 누가 이를 영국 언론에 흘렸는지를 놓고 논란이었다.

선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를 하고 축협이 고치도록 선도해야지 숨기는데 더 노력하는 한국이 쓸쓸했다. 하나도 숨김없이 오히려 대형 스크린에 슈퍼스타 남친의 모든 것을 까발리는 미국 스포츠계와 비교할 때 아직도 멀었다고 본다.

## 챗GPT와 생성 AI를 둘러싼 쟁점들



송명국 (철학 90)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대 교수

딥러닝은 2012년부터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며 AI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딥러닝의 계층적 구조는 인간 두뇌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한다. 대표적인 생성 AI 모델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

works, GANs)은 생성자 네트워크와 판별자 네트워크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어 사실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

2017년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기반 기술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의 도입으로 언어 모델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과 유사할 정도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단어 단위가 아닌 전체 문장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맥에 대한 이해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켰고 이에 따라 문맥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예측하여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는 GPT 모델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지어 내는 환각(hallucination)현상은 현재 언어 모델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단백질의 3차원 폴딩(folding) 구조 예측과 신물질 발견 등 과학 연구와 신약 개발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I가 언젠가 인간의 사고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능을 갖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AI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의식과 인간 지능의 본질을 둘러싼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켰고, 생성 AI와 같이 복잡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블랙박스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도 있는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철학자 존 셸(John Searl)이 1980년에 제기한 중국어 방 논쟁은 AI의 언어 처리 능력이 반드시 인간과 같은 언어 이해나 진정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얼마나 과장되어 있을까?

자율 주행차는 엣지(edge) 케이스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AI의 성능에 대한 데모와 실제 구현 사이의 간극 역시 AI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검증용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오염의 문제도 AI의 추론 능력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흔히 AI의 실존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인용되는, 대규모 언어모델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능력(Emergent Abilities)' 역시 어떤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아직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AI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간의 판단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김학천  
(치대 70)

## 한국 정부와 의사들의 치킨게임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4년 소련의 타이푼급 신형 전략 미사일 핵잠수함인 붉은 10월호(Red October)가 첫 항해를 시작했다. 허나 이 항해는 소련에 환멸을 느낀 해군 최고의 잠수함장 라미우스(Marin Ramius) 대령이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얼마 후 이를 알아챈 소련 당국은 붉은 10월호를 격침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보내고 어뢰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소련은 정부에 반기를 든 미친 함장이 미국에 핵공격을 하려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알리면서 격침하라고 주문한다.

헌데 이 잠수함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

로운 비밀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무소음(無騷音) 신기술이었다. 이 때문에 추적이 힘든 상황에서 미국은 어렵게 이를 간신히 극복한 후 '붉은 10월호'의 의도가 망명하려는 것임을 알아채고는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구출한다.

이 이야기는 1975년에 있었던 구축함 '스토로제보이 호'의 실화가 배경이다. 헌데 '붉은 10월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라미우스 대령을 대신해 이 잠수함을 잠시 지휘하던 중 소련의 어뢰공격 위기의 순간에서 미해군 핵잠수함 함장은 이런 말을 내뱉는다.

'치킨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제 발을 빼느냐 거지'

여기서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놀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자동차를 마주 달리다가 충돌하기 직전 먼저 겁을 먹고 운전대를 꺾는 사람이 치킨, 즉 '겁쟁이'가 되는 게임이다. 제임스 딘이 나와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는 두 자동차가 나란히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치킨게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상대방을 꺾었다는 자부심밖에 없이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둘 다 승자가 되겠지만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자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 라든가 혹은 '최후의 통첩' 같은 게임도 있지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이 유명하다.

이는 두 사람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최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으로 결국에는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협력으로 양측의 이익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서로 욕심과 불신에 빠지면 둘 다 망한다는 얘기다. 전자의 경우 '넌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이라고도 불린다.

아무튼 개인간의 치킨 게임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기업간이나 단체간, 혹은 국가간 등의 치킨 게임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정(醫政)간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생결단식 대립이 치킨게임을 연상케한다.

돌이켜 봐 미핵잠수함 함장의 '치킨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제 발을 빼느냐는 거지' 라는 말처럼 아차 늦으면 공멸할 지도 모르는 마지막 위기 순간으로 내몰리는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 반면에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대립과 협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넌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선택의 여지.

모쪼록 이번 의료사태가 언제보다는 어떻게 발을 빼느냐로 조속히 공동의 선으로 가는 길이 찾아졌으면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도리이어서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김영옥 대령 하이웨이'의 소회

LA에서 남쪽으로 20여 마일 떨어진 5번 프리웨이의 부에나팍 구간에는 표지판이 하나 서있다.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Colonel Young Oak Kim, U.S. Army, Memorial Highway)다. 가로 10피트, 세로 4피트 크기로 제작돼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교차지점이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로 명명돼 있지만 한인 이름을 딴 고속도로 구간이 생긴 것은 미국에서 '김영옥 대령 하이웨이'가 처음이다.

김영옥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한국전쟁에서도 용맹을 떨친 한인 2세대. 그가 소위로 임관된 해는 1943년, 전쟁이 한창일 무렵이다. 그가 배치된 곳은 442부대다. 전원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2세(닛세이)로 편성된 연대급 규모의 전투부대로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됐다. 혹 일본계의 반란을 우려한 군 당국이 태평양 전선 대신 유럽쪽으로 보낸 것이다.

동양계 장교가 백인 병사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을지 싶다.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이 미국사회를 강하게 지

배했던 때여서 청년장교 김영옥은 442부대 외엔 갈 곳이 없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알고 있던 백인 부대장이 김영옥에게 타부대 전출을 종용했다. 닛세이 병사들이 한국계 장교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것은 뻔했을 터. 상관의 명령에 김영옥은 단호히 말했다. "이 부대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 합중국군의 군인들입니다. 함께 공동의 적과 싸울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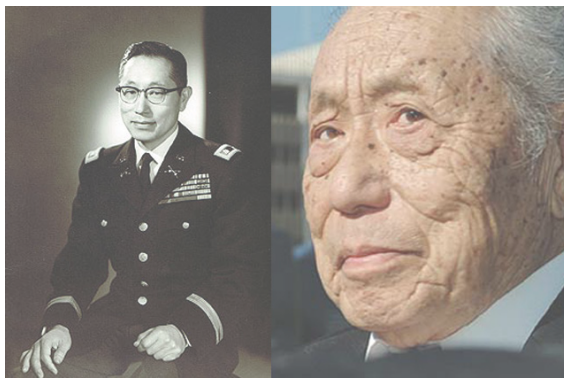
그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닛세이 병사들은 김영옥을 따르고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

유럽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김영옥은 종전과 함께 귀국해 중령으로 예편,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 간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자 다시 현역으로 복귀, 이번엔 백인들을 지휘한 최초의 동양계라는 기록을 미국 전쟁사에 남겼다.

2차 대전때까지만 해도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부대를 편성해 싸웠지만 한국전은 흑과 백 두 인종이 함께 생활하며 전투를 치른 최초의 전쟁이었다.

한국전이 발발하기 2년 전 해리 트루

먼 당시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 9981호에 서명,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9981호는 인종차별은 물론 인종분리를 철폐하라는 대통령 명령이다. 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전쟁영웅 고 김영옥 대령.

법안을 상정하면 남부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불보듯 뻔해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양계 장교가 백인과 흑인 병사들을 지휘하게 됐으니 당시로선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트루먼의 행정명령은 나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투쟁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한국전쟁에 파병된 미군병사는 어림잡아도 10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90%는 백인들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흑인과 함께 전투를 치렀다.

모성애보다 진한 것이 전우애라고 하지 않는가. 한술밥을 먹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함께 싸웠으니 흑인들을 '전우'로 대우하게 된 것이다. 킹 목사가 민권운동을 전개하자 한국전 파병 백인들이 대행진에 참여했다. 백인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킹 목사의 '꿈'은 한낱 공허한 날말로 끝나지 않았을까.

흔히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미국의 민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결코 잊지 못할 계기가 된 것이다.

오늘도 5번 프리웨이를 달리며 트루먼의 행정명령 9981호와 김영옥을 떠올린다. 지난 2005년 그가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은 하와이에서 442부대장으로 치러졌다.

생존 닛세이들은 김영옥을 부대의 모토인 'Go for Broke'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추모했다. 노름판 슬랭으로 '전부를 걸다'는 의미다.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에 맞서 인생의 전부를 건 김영옥이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욱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휘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7/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수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고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남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걸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중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홍목 (문 60)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영기 (공 65)**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중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옥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백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우춘식 (상 61)  
**원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아중 (농 74)  
 유석환 (치 55)  
 육태식 (의 61)  
**육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용한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재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조정래 (상 65)  
 조총자 (간 61)  
**조태욱 (사 60)**

주훈 (음 69)  
**차종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흥택 (공 60)  
 현기용 (문 64)  
**홍성선 (약 72)**  
 홍태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홍 (공 55)**  
**황현상 (의 55)**

### 뉴욕

Aija Lee  
 광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용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규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우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철 (의 55)  
 김영희 (법 80)  
**김영민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양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면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방경웅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춘선 (사 57)  
 석창호 (의 66)  
 송재희 (의 59)  
 성기로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성택 (상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우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명중 (공 72)**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흥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웅 (사 63)  
 최한웅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금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수 61)  
 김선희 (약 59)  
 박영철 (농 64)  
 박종건 (의 56)  
 송미자 (농 62)  
 이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 네바다

김상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이학은 (약 57)**  
 정상진 (상 59)

### 달라스

최희기 (공 61)

###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윙정식 (농 86)  
**이창재 (문 56)**  
 주한수 (수 62)  
 황효숙 (사 65)

###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 하계현 (공 64)

###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병복 (사 55)  
 김경희 (법 56)  
**김현양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형 (공 57)  
 이창환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래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충민 (간 67)**  
 조태욱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 샌디에고

고경하 (공)  
 남장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 (공 64)  
 이영신 (간 77)  
**임춘수 (의 57)**

### 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환 (간 69)**  
**김우주 (공 69)**  
 김용환 (공 71)  
 김윤하 (공 66)  
 김현주 (문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김준호 (공 66)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백윤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송영준 (사 61)  
 윤덕상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정 (공 69)  
 이등국 (공 75)  
**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이용수 (약 51)**  
 (고)이윤모 (농 57)

###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청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

###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고)이영웅 (의 57)

### 워싱턴 DC

강길종 (약 69)  
**고의걸 (의 55)**  
 광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용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 캘리포니아

**이종영 (음 58)**  
 정신희 (자 78)

###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송 (의 58)**

### 테네시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황 (농 56)  
 유영준 (문 60)  
 조진태 (문 57)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창 (문 67)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일 (공 72)**  
 변동해 (법 58)  
 안승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 유타

김인기 (문 57)

### 조지아

김기춘 (공 61)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 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윤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문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지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이학호 (수 59)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b>남가주</b>	
김현주 (문 61)	100
이윤락 (공 48)	200
손재욱 (가 77)	300
김자성 (의 79)	100
김동영 (사 60)	200
김원탁 (공 65)	500
강호석 (상 81)	200
이종모 (간 69)	500
정균희 (의 64)	10,000
정재훈 (공 64)	10,000
하기환 (공 66)	1,000
김경우 (공 69)	200
김원탁 (공 65)	500
신동국 (수 76)	100
신동국 (수 76)	500
최무식 (약 66)	50
이경희 (인 83)	20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b>뉴욕</b>	
관선선 (공 61)	200
신승남 (농 70)	500
석창호 (의 66)	100
신승남 (농 70)	200
석창호 (의 66)	20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40
<b>장학기금</b>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b>뉴욕</b>	
선종철 (의 59)	100
신승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200

<b>미시간</b>	
이상길 (의 65)	200
<b>커네티컷</b>	
최창송 (의 58)	200
<b>샌디에고</b>	
임춘수 (의 57)	300
<b>워싱턴DC</b>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5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b>시카고</b>	
소진문 (차 58)	200
최희수 (문 67)	100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1,000
<b>테네시</b>	
김경덕 (공 75)	200
<b>텍사스</b>	
황명규 (공 61)	200
<b>필라델피아</b>	
최창송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b>미네소타</b>	
김권식 (공 61)	1,5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41,000
<b>휴스턴</b>	
진기주 (상 60)	1,000

<b>하와이</b>	
(고) 전영표 (문 55)	1,000
<b>업소록 후원금</b>	
<b>남가주</b>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우 (공 69)	240
김원탁 (공 65)	240
신동국 (수 76)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이경희 (인 83)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b>뉴욕</b>	
신승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b>오레곤</b>	
박희진 (농 78)	24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40
<b>장학기금</b>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b>뉴욕</b>	
선종철 (의 59)	100
신승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200

<b>시카고</b>	
김현주 (문 61)	3,000
이윤락 (공 48)	3,0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김양희 (음 77)	900
미주재단	7,000
박수경 (생 84)	1,8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b>뉴욕</b>	
김승호 (공 71)	1,50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박우선 (공 57)	3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100
한광수 (의 57)	300
<b>오레곤</b>	
김영자 (간 56)	1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튀르키예 기부금</b>	
<b>남가주</b>	
서진 (간)	3,000
<b>뉴욕</b>	
신승남 (농 70)	200

<b>Website 광고</b>	
<b>남가주</b>	
김자성 (의 79)	1,000
<b>Brain Network</b>	
<b>뉴욕</b>	
신승남 (농 70)	100
<b>시카고</b>	
한재은 (의 59)	100
<b>워싱턴 DC</b>	
오인환 (문 63)	2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Charity Fund</b>	
<b>필라델피아</b>	
신의석 (공 53)	5,000
<b>나눔기금</b>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지부분담금</b>	
<b>북가주</b>	
최경선 (농)	1,300
<b>뉴잉글랜드</b>	
최진민 (공 71)	1,000
<b>캐롤라이나</b>	
정신호 (자 78)	200
<b>휴스턴</b>	
김정환 (공 80)	550
<b>워싱턴</b>	
임현민 (공 84)	800
<b>텍사스</b>	
최문기 (공 63)	200
<b>조지아</b>	
배해영 (음 79)	80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중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b>일반광고비</b>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4" Color \$400		<b>Website 광고비</b> <input type="checkbox"/> \$500 (1년, 3.5" x 2")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5" x 4.5")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b>SNUAA USA</b>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yah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신혜원 변호사</b>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북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치과</b>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b>KL CPA &amp; Associates LLC</b>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신응남 변호사</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UL-2, Flushing, NY 11358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박종호 소아과</b>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b>필라델피아   PA</b>
<b>건축</b>
<b>THA Consulting, Inc</b>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b>의료 / 치과</b>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b>오레곤   OR</b>
<b>엔지니어링</b>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b>기타</b>
<b>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b>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b>조지아</b>
<b>건축</b>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b>의료</b>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m, GA 30345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이상대 (농대 80)

*Specializing in routine diabetic foot care, sports medicine, and more*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식사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_\_\_\_\_ 연락처(이메일):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효숙(사)

### 명예회장 노명호(공)

###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만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지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l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r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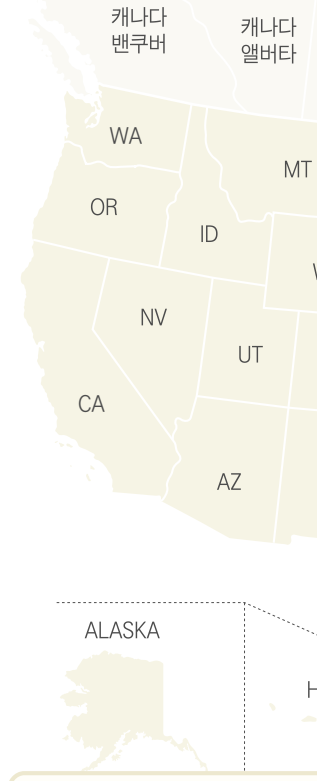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6)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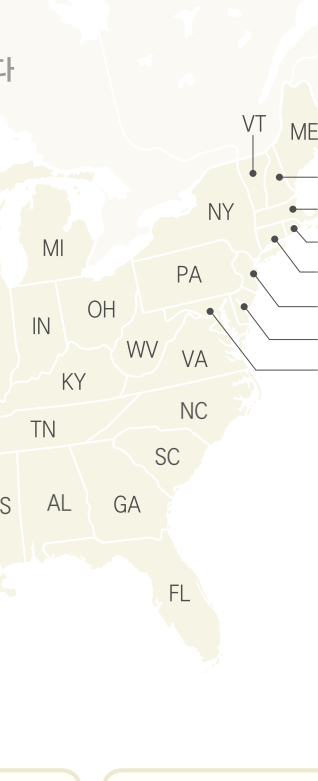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snu@gmail.com

**워싱턴 DC/MD/VA/WV** (Jan~Dec)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하블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vols.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 결혼해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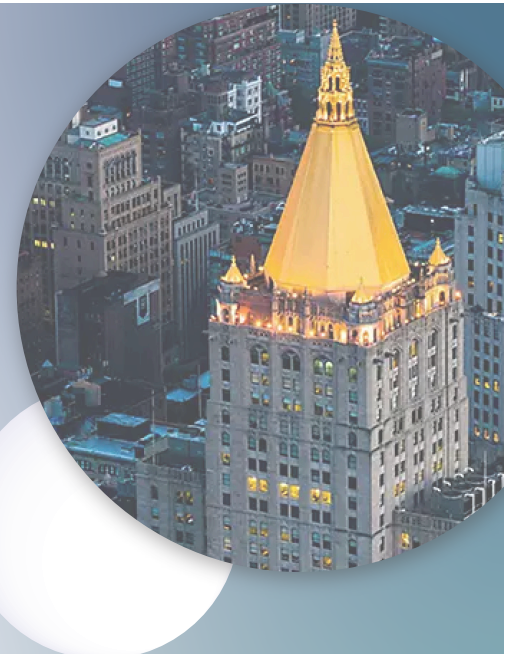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N insurance** 정세근(자연대 82)

## C&N 종합보험 | 뉴욕라이프

Office. 703-663-8400  
Cell. 703-785-8467  
11325 Random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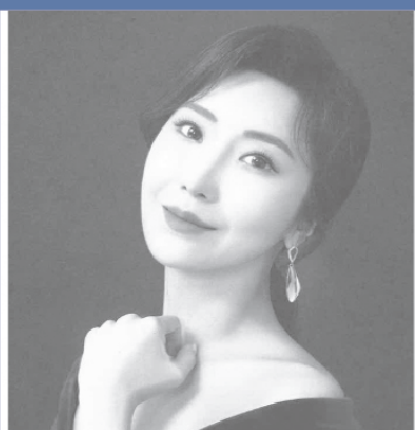
# Benefit Concert for the N.Korean Refugees

“Beyond Utopia의 주인공 갈렙선교회를 위한 모금음악회”

## 제42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희망가, 산아, 신아리랑, 진달래꽃  
강건너 봄이 오듯, 마중,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솔베이지의 노래, 보리밭...

Bach, Schubert, Mozart, Korean Songs...



소프라노 김지유  
Soprano Jiyu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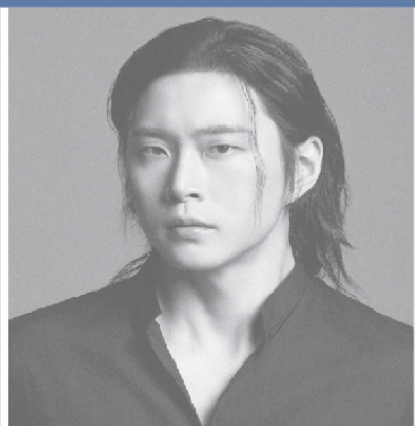
소프라노 권현이  
Soprano Hyune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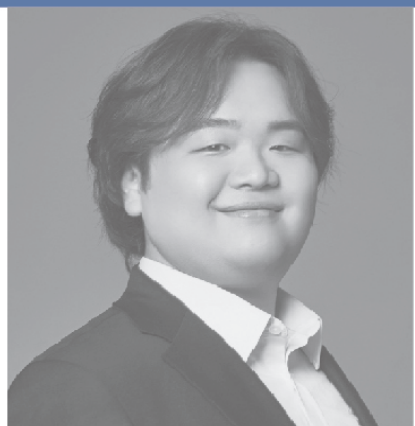
소프라노 이슬  
Soprano Seul Lee



소프라노 전예원  
Soprano Yeawon Chun



베이스 바리톤 강동훈  
Bariton Donghoon Kang



테너 박승현  
Tenor Moses Sunghyun Park



피아노 콰예인  
Pianist Ye In Kwak



테너 서병선  
Tenor Byung Sun Soh

- DATE: SUNDAY(일요일), May 19, 2024 at 6PM
- PLACE: 하크네시아교회(전광성 목사) HaKnesiah Presbyterian Church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Bus.Q27,Q30)  
(718) 229-9191 (Parking Available)
- 주 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 후 원: 하은교회(거스김 목사), 동산교회(이풍삼 목사), TKC-TV,  
SHAKE-N-GO, SUNGSIM ACUPUNCTURE  
뉴욕한국문화유산선양회(회장, 이춘범 장로)

■ 특별후원:  **한국일보**

**TICKETS**  
\$20.00

예매처

▲ 반디서점  
(718) 353-4411  
14722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하나뮤직(HANA Music)  
(201) 943-7782  
43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 NY Art Songs  
(212) 567-6919  
Manhattan